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9호 【루계 제25568호】 주체106(2017)년 2월 28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평안남도교려병원 간호원 박은숙, 남포시인민위원회 자재상사 로동자 림충심, 선교구역종합식당 로동자 김진숙은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이 나래치는 물길공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평안남도인민위원회 도시경영관리국 로동자 강미향은 일두삼천리벌의 풍요한 전야마다에 생명수를 부어주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 기여한 일의드높이 물길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있다.

지난 기간 친군사업과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보통강구역 붉은거리1동 54인민반 김정희는 돌격대 명예대원이 되어 영예군인인 남편과 함께 수십차례나 건설장을 찾아가 힘있는 경제선동과 지원으로 전투원들을 위훈에로 고무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선 건설자들을 돕는 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운전군인민위원회 부장 홍충심은 그들의 생활에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였다.

평안북도 운전려관 로동자 채정순은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물길건설을 성의껏 지원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대건설투쟁에 참가한 심정으로 덕천시상업관리소 로동자 차명신은 온 가족의 지성어린 후방물자들을 공사장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강원도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를 수호하신분》

벌가리아단체 블레찐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가 블레찐 2월호를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사회주의를 수호하신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사회주의를 수호하신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계시였다.

세계사회주의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업적은 몇권의 책으로도 담지 못할 실로 거대한것이다.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로 하여 1992년 4월 력사적인 평양선언이 채택되였다.

블레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가 《전제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는 반사회주의자들의 비난이 창궐무제한 궤변임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증강한 땅크장갑보병련대 겨울철도하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무장직승기들의 지원밑에 진행된 연습에는 땅크들과 장갑차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주먹이 제일 세기로 소문난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 확실히 다르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실전화된 강도높은 훈련들을 주야일기에 관계없이 더 많이 조직진행하며 모든 땅크, 장갑무력을 더욱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남반부공격작전지대안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불이 번쩍나게 와닥닥 쓸어버리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로씨야의 텔레비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에스빠냐 바스꼬주체사상연구소조 인터네트홈페지는 우의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오중흠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314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 려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오중흠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314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 고 강기섭동지의 명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신 소식을 올렸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미국의 UPI통신은 북조선령도자께서 고층건물들이 늘어선 려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대규모거리건설을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4월 15일전으로 끝낼것을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이곳은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지상락원을 자기의 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 하늘을 찌를듯이 높아가는 사회주의문명을 과시하는 곳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의 발악적인 군사적압살책동과 경제제재속에서 진행하는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거리형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라오스통신, 중국의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로므니아의 메디아팍스통신, 신문 《아제르쁘레스》, 세네갈신문 《복스 뽀뿔리》,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물스까지부,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블로그스포쯔. 루》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카방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관》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평양카방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솔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과학기술로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을 열어간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장에 선 당조직들에서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단위 당조직들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2.8직동청년탄광 당조직에서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석탄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광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당조직에서는 탄부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는것과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각이한 암질조건에 따르는 효률적인 발파방법과 묶음식통발에 의한 광폭식무잔주채탄법 등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굴진속도와 석탄채취률을 높이고있다.

탄광에서는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동하여 석탄공업부문에서 제일먼저 시간당 100t능력의 공기복합식선탄기를 제작하고 300m의 지상벨트콘베아를 설치하여 버럭처리능력을 훨씬 높이였으며 원격봉사체계에 의한 일생산 및 재정총화공시, 갱내 송상카메라에 의한 입갱장악, 콤퓨터에 의한 실시간석탄생산실적장악 등 생산조직과 지휘, 경영활동을 정보화하였다.

이 과정에 탄광적으로 박사 1명, 석사 3명과 수십명의 창의고안 및 발명증서소유자들을 배출하였다.

탄광에서는 지난해 매월 1만4천여t의 석탄을 증산하여 화력발전소에 보내준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인민경제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였다.

희천고려약공장 당조직에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생산공정과 경영관리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을 기술혁명결의목표에 반영하고 힘있게 내밀었다.

공장에서는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기간 2 150여㎡의 생산건물을 새로 일떠세운데 이어 200일전투기간에는 농축기, 추출기를 비롯한 80여종의 현대적인 제약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국산화하였으며 공장기술력량과 해당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무균화하여 GMP(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인증을 받았다.

과학적타산에 기초한 경영전략을 세워 종전에 비하여 로력을 훨씬 절약하면서 20여종의 대중약과 상비약을 엑스화하였으며 황금두릅항암알약을 비롯한 5종의 효능높은 약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총정의 200일전투목표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올해 2월계획을 뜻깊은 광명성절전으로 200%이상 넘쳐 수행한 기세로 3대혁명의 기치높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남포항 당조직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상하선능력을 높이는것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그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항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동하여 적은 자금으로 수입산 기중기보다 시간당 짐함처리능력이 1.2배이상 높은 우리 식의 40t짐함기중기를 훌륭히 제작완성하였다.

지난해 5t항만기중기를 만들 목표를 세운 항에서는 기술자, 로동자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기중기팔을 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자재와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훌륭히 제작완성하였으며 년간 화물통과계획을 8월까지 앞당겨 수행하고 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황해북도첨단기술제품제작소 당조직에서는 해마다 연구사들과 기술자들에게 과학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주고 그 실천에로 적극 불러일으켰으며 모범적인 대상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하는 등 정치적평가와 품질적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연구사들과 기술자들이 종전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온도를 높일수 있는 능동형전기보이라를 제작도입하였으며 사리원육아원과 애육원에 지열랭난방체계를 도입하고 시, 군양묘장들에서 태양빛전지에 의한 양수동력체계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전국의 300여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도입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고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였다.

리원장공장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기초식품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훨씬 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봉화화학공장, 대동강식료공장,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차수리분공장 등 많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단위들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려명거리건설소식

려명거리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

전국각지에서

우리 당의 대건설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으로 온 나라 인민들의 애국의 마음이 끊임없이 물결쳐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일터와 초소, 마을을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같이 여기고 항상 당과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려명거리건설을 태양절전으로 무조건 끝낼 일념으로 가슴들려우는 건설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며 각 도, 시, 군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일군들이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았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받아안은 즉시 도당위원회 일군들과 각 시, 군당위원장들, 해당 단위 일군들의 긴급협의회를 조직하고 도려단이 맡은 공사를 태양절전으로 기어이 완공하기 위한 경제실무적대책을 따라세웠다. 지난 2월 6일 필요한 건설력량을 긴급히 보충해준데 이어 9종에 1 300여점의 각종 기공구, 7종에 10여t에 달하는 많은 후방물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2월 9일에는 40여명의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직접 려단이 맡은 전투현장으로 달려와 많은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경제선동을 진행하였으며 일도 함께 하면서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평안남도에서는 지난 2월 15일 도당위원회와 30여개 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이곳 전투현장에 찾아와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애국의 마음어린 많은 후방물자와 로동보호물자들을 넘겨주었다.

평안북도의 일군들은 도려단의 력량보충문제와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긴급토의한데 기초하여 려단의 전체 돌격대원들에게 위문편지와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2월초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해당 일군들이 도안의 인민들의 성의가 담긴 16종에 2 000여점의 기공구들과 수십t의 후방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달려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4일과 15일에는 로력과 기술력량을 보충해주었으며 20여대의 화물자동차들도 보장해주었다.

라선시에서는 지난 1월말 시, 지구당위원회 일군들이 려단돌격대원들의 가정방문을 진행하여 생활상 애로되는 점들을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취해주었다. 시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수천리길을 달려와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정치사업도 진행한데 이어 많은 기공구들과 식료품,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었다.

남포시당위원회 일군들과 시안의 여러 구역, 군인민위원장들도 전투현장에 찾아와 많은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넘겨주었으며 장산소하천관로공사장 지대정리에서 제기되는 800여벌의 비옷과 장화, 500여㎡의 면적에 심을 잔디를 보장해주었다.

다른 도들에서도 수많은 건설장비들과 자재, 후방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현지보도반

1.4분기계획완수자 백십여명 배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방직공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맡겨진 생산과제를 한일 년씩 수행하고있다.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진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줄기찬 생산전투를 벌려온 공장에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십여명에 달하는 1.4분기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다. 2월 26일현재 공장적으로 20여명의 방직공들이 상반년계획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올해를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창조하는 해로 되게 하자고 하시며 경공업공장들을 찾고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마음속에 안고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분분초초를 아껴가며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다추다기대운동으로 지난 시기 두묶, 세묶의 일을 수행하여 혁신자로 소문난 직포공, 정방공들속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으며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난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직포공 문장순동무가 지난 1월 중순에 1.4분기계획완수의 첫 승전고를 울린데 이어 방직종합직장 청년정방직장 남수향, 장은하, 3정방직장 리혜심, 조향미, 전방종합직장 인견천직장 김진향동무들이 련이어 1.4분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이들은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기상높이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상반년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 2직장 오설경, 박정심, 전방종합직장 1직포직장 김선희, 고송신동무들은 당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드세차게 벌림으로써 기대를 다른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혁신의 나래를 펼치고 1.4분기계획수행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평양카방공장을 찾으시여 원자재창고에 넘쳐나는 가방천을 보시며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을 가슴깊이 새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린 직포종합직장 3직포직장 김선희, 양문주동무도 1.4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전방종합직장의 일군들은 방직공들모두를 만리마속도의 창조자들로 내세우기 위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방법론있게 조직하여 온 직장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치게 함으로써 공장적인 1.4분기계획완수자의 1/3이 넘는 혁신자들을 배출하였다.

직포종합직장과 방직종합직장의 직포공, 정방공들도 만만한 투지를 안고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과 편직사직장에서도 날을 따라 혁신자의 대렬이 늘어나고있다.

전혜영

겨울철배수리 성과적으로 결속, 련이어 출항

서해의 수산사업소들에서

서해의 포구마다에서 당정책옹위전의 함성이 세차게 메아리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수산성적으로 지난 10일까지 수백척 고기배들에 대한 겨울철배수리가 전부 끝났다.

지금 서해안의 수산사업소들에서는 겨울철배수리를 끝낸 고기배들을 바다에 띄워 신속히 중심어장을 차지하기 위한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다. 남포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일부 단위의 고기배들은 얼음장이 떠도는 날바다와 싸우며 중심어장으로 항행하고있다.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이 뚜렷한 성과는 서해에서 3월 하순에야 첫 출어를 보장하던 기성관례를 타파하고 출어일수를 늘여 뜻깊은 올해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릴수 있는 담보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수산성과 각 도수산관리국의 일군들은 바람세찬 포구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뜻을 기어이 결사관철할 불같은 의지를 안고 겨울철배수리와 과학적인 어로전준비를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한편, 문덕, 온천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조건이 보장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맞받아 나가는 공격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공무수리기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한데 기초하여 집중적인 부속품가공과 선체보수를 진행하여 배수리속도를 최대로 높이였다.

정주, 카마포, 남포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고기배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가 적극 발동된 가운데 철판과 용접봉 등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현대적인 지휘선들과 만능어선들을 더 많이 무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특히 정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고기배현대화에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 높이 울릴수 있는 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10척의 크고작은 고기배들을 자체로 무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소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겨울철배수리와 고기배현대화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겨울철배수리의 앞장에는 한편, 문덕, 온천, 평천수산사업소가 섰으며 고기배현대화에서는 정주, 카마포, 남포수산사업소가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수산성에서는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시로 조직하고 어구와 연유보장에 큰 힘을 넣었다. 동시에 물고기들의 생활습성에 맞는 여러가지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낼수 있도록 갑판설비들을 개조하고 서해의 가까운바다와 먼바다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에 따라 배수리전투와 동시에 각 수산사업소들의 과학기술보급실과 포구들은 앞선 물고기잡이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어로공들의 학습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지금 서해의 포구들에서는 겨울철배수리를 끝낸 수백척의 고기배들이 올해의 첫 출항에 진입하고있다.

수산성에서는 물고기잡이경험이 풍부한 일군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어황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집중과 분산적인 어로전으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따라세우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남포수산사업소에서—

특파기자 찍음

혁명전통계승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 대한 세계언론의 보도자료를 마주하고있다.

《조선 (북극성－2)형시험발사 대성공》, 《조선 신형탄도미싸일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발표》, 《새형의 북조선탄도탄 전세계를 충격》…

지난날 세기적락후의 질곡속에 허덕이며 화승대조차 없어 대포와 기관총을 쏘아대며 달려드는 일제아수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이렇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있다.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핵강국, 우주강국!

조용히 그 이름 부르느라면 위대한 존엄을 지닌 불패의 강국의 한성원이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하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오늘과 같이 이렇듯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만을 아로새길수 있은 힘은 과연 무엇이던가.

백승만을 아로새기며 전진하는 우리 혁명은 백두에서 개척된 위대한 전통을 귀중한 혁명적재보로, 당과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명맥으로 삼고 끊없이 발전풍부화시켜온 계승의 력사를 빛내이고있다.

바로 여기에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닌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과연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가에 대한 가장 명명백백한 대답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고 그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밑천입니다.》

지나온 력사는 혁명투쟁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전통을 어떻게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가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이 땅에 혁명전통계승의 빛나는 장을 장엄하게 펼쳐주시였다.

지난 세기 50년대 중엽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앞장에 서시여 개척하신 백두산지구에로의 탐사행군은 위대한 혁명전통의 빛나는 계승으로 이 땅에 영원한 승리를 안아오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숭고한 발현이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성스러운 그 행군길이 있어 이 땅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시원이 열리게 되였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지금도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1960년대에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여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시며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기점으로 훌륭히 꾸린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에 넘치신 모습이 깊이 새겨져있다.

그 나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백두의 혁명전통이 천만군민이 영원히 간직하고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전투적기치로 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를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구호들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얼마나 세찬 혁명열, 투쟁열을 주었던가.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가 마련된 1960년대에 이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선포되고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진성기가 펼쳐진 1970년대의 거대한 승리들도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구현해나가는 길에서 이룩되였고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아로새겨진 새로운 평양속도, 80년대속도도 투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로 창조하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필승의 보검으로 내세우신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가장 엄혹했던 1990년대를 위대한 기적적인 년대로 찬연히 빛내였다.

《심각한 굶주림과 추위, 동력난을 겪고있는 북조선이 존재한다는것자체가 기적이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어느 한 나라의 잡지에 실린 글이다.

온 세계가 조선에 눈길을 모으고 주시하고있던 그때 우리 조국이 모진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과감히 일어설수 있은것은 그 어떤 우연이 아니였다.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 혁명의 영원한 피줄기이며 령백인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우리는 끝까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갈것이다.

세계를 진감시킨 이 력사적선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백두에서 개척된 위대한 혁명전통을 더욱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는 백두산천출위인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 때 사회주의강국건설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강철의 신념과 의지, 배짱을 지니시였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피눈물의 언덕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다.

선군의 기치, 정녕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선군의 위대한 전통의 빛나는 계승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철석의 신념과 의지에 떠받들리여 전군을 오중흠7련대로 만드는것이 인민군대의 총적목표로 제시되고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수행하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더욱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사업을 어떻게 령도하여오시였는가를 알려면 《인민들속에서》를 학습해야 한다고, 우리가 앞으로 선군의 기치를 끝까지 들고나가자면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와 같은 회상기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신 우리 장군님의 교시는 천만군민의 가슴에 억년암반마냥 새겨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이 땅에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한 위대한 시대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게 되였으며 온 나라에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실현되어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인 일심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선군혁명의 병기창이 억척같이 다져질수 있은것은 이 땅에 혁명전통계승의 빛나는 장을 장엄히 아로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혁명전통을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하신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혁명전통계승의 보다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몇해전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가들은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아야 한다고,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적신념을 더욱 벼려주고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바람, 백두산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시려는 그이의 철석의 의지가 세차게 맥동치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이 있기에 자력자강의 정신력도 있고 혁명의 최후승리도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였기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두해전 4월 새벽이슬을 헤치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새날은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온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신것이리라.

백두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승리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위대한 정신력을 분출시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게 하고있다.

위대한 전통의 빛나는 계승속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찬 발걸음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이 나라 천만군민이 심장마다에 드놓지 않는 신념으로 더욱 깊이 새겨안는 귀중한 철리이다.

그렇다.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을 헤치시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혁명의 길,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선군의 혈맥을 이어주신 력사의 길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사회주의강국에로 이끌어가시는 백승의 길이다.

죽어도 혁명신념 변함이 없이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며 영원히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에 최후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위대한 전통의 계승으로 혁명의 대년대들을 승리의 력사로 아로새겨왔듯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언제나 이 땅에 자랑찬 승리와 영광만을 장엄히 아로새겨갈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깊이 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최근년간 얼마나 훌륭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섰는가.

세어볼수록 마음호뭇하다.

미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과학기술전당, 문수물놀이장…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어주는가.

잊지 못할 하나의 사실이 떠오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연길폭탄도 만들어내고 무기도 자체로 해결하여 일제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광복거리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문건을 보고 또 보시며 지으기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옆으로 밀어놓으시였다.

그것은 얼마전에 일군들이 올린 앞으로 건설되는 대상들에 필요된다고 본 수입자재명세였다.

개개의 대상마다 한두가지였지만 그것을 다 합쳐놓고보면 정말 엄청난것이였다.

(이제 그이께서 어떻게 결심하실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군의 마음은 몹시 초조하였다. 그런데 방안을 오가시던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들려주신 《밀림속의 병기창》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중심부대를 두만강연안으로 옮기시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도의 혁명가들이 쏘련사람들에게 청원편지를 낸 사실을 아시게 되였다.

청원의 내용인즉 수류탄공장을 하나 지어달라는것이였다.

그러나 쏘련에서는 수류탄공장을 해결해주겠다는 대답도, 해결해주지 못하겠다는 대답도 오지 않았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누가 우리에게 수류탄을 거저 가져다주겠는가, 우리는 수류탄을 자체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것을 자력갱생하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결심하시고 마촌골안에 철공소를 차려놓게 하시였다.

이 철공소가 후날 《마촌병기창》 또는 《소왕청병기창》으로 불리워진 밀림속의 병기창이였다.

바로 그 병기창에서 유명한 연길폭탄이 제조되여 일제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연길폭탄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자신께 조선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연길폭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라고 교시하시였다고, 자신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자력갱생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을 내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연길폭탄을 생각하군 한다고 하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이의 가슴속에 간직된 연길폭탄, 그것은 곧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였고 기어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시려는 강철의 의지였다.

일군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그것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 우리의 영원한 재부이다.

본사기자 김철혁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에서 올리신 총소리 오늘도 답사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보천보혁명전적지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말음혁명사적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은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청진시 수남구역에 위치하고있는 말음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자욱이 새겨진 뜻깊은 곳이다.

말음이라는 지명은 당시 부령군 청암면에 속해있던 수남지구가 제일 끝에 위치하고있으며 나무가 울창하여 항상 그늘이 지고 어둑침침한 고장이라는데로부터 유래된것이다.

말음혁명사적지에는 해방전 청진지방에 있던 3개의 극장들중에서 제일 가운데 위치하고있다고 하여 중앙극장이라고 불리우던 문화회관과 라진사람들이 와서 운영하여 라진면옥이라고 하였다는 2층짜리 건물이 당시의 모습으로 서있다.

해방후 청진지구에서의 사업을 자진하여 맡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2월초 어리신 장군님과 함께 청진에 오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관철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건설적인 항일빨찌산의 녀장군과 자제분을 맞이한 이곳 인민들은 중앙극장에서 환영모임을 마련하였다.

항일의 군복차림으로 인민들앞에 나서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시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려주시면서 투사들이 흘린 피를 절대로 헛되이 하지 말고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물론 지금은 일제놈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남은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길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많고 로동계급이 많이 집중된 여기 수남지구가 새 조국건설에서도 앞장서야 한다고, 하루빨리 파괴된 공장들과 수산업을 복구해서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시자 라진면옥주인이 달려와 지난날 산에서 싸우실 때 따끈한 밥 한그릇 대접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꼭 자기 집에서 만든 국수를 드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의 거듭되는 청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리신 장군님과 함께 라진면옥에 들리시였다.

력사의 그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일군들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주체96(2007)년 2월 5일 말음혁명사적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보아주시면서 이 집 가족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비롯하여 30여년동안 김정숙어머님께서 리용하신 그릇들을 집안의 가보로 보관하고있다가 가져다놓은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말음혁명사적지에는 백두산위인들께서 리용하신 사적물들이 정중히 보존되여 잊지 못할 력사의 이야기를 감명깊게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혁명전통교양에 큰 힘을 넣어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 탕조직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특히 군중교양과 당세포사업을 강화하여 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강사들이 자료학습과 시범강의, 강의안합평회들을 통하여 해설강의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이고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를 찾는 모든 답사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이곳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에서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

오늘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력은 천백배로 강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드높이 겹쌓이는 만난시련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과감히 헤쳐나가는 혁명적인 인민이다. 세상에는 우리 인민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세기를 이어 승리만을 떨쳐온 긍지높은 인민은 없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전체 인민의 정신력이 높이 발휘될수록 혁명적대고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는것이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이다.

우리 인민은 모진 고난과 시련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지닌 투사들이다.

혁명은 공격전이다. 막아서는 시련앞에서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데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길이 있다.

공격전은 우리 당의 위력한 투쟁방식이며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유한 투쟁기풍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힘차게 돌진해나갈 때 어디서나 기적과 변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불패의 강국건설을 더욱 앞당길수 있다는것이 천만군민이 혁명실천을 통하여 새긴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과정에 해여난 천리마정신과 평양속도, 강계정신과 희천속도와 같은 시대어들에는 우리 천만군민의 완강한 공격정신이 힘있게 맥동치고있다. 혁명의 년대들마다 우리 인민이 겪은 고난과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의 반공화국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였고 지난 세기 90년대에는 력사에 류례없는 최악의 역경을 겪어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불사신처럼 일어나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만난을 헤치며 억세게 전진하였다. 이 불굴의 정신력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더욱 세차게 분출되여 마식령속도창조에 이어 오늘은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로 이어지고있다.

우리 조국이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르고 백두산영웅청년정신, 강원도정신이 창조된것은 우리 당의 계속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의 공격정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온 나라가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세는 비상히 앙양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부름에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대답하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체질화한 혁명적인민이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언제나 일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고귀한 지침이다.

우리 인민은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하고 결사관철해온 충직한 인민이다. 전화의 연옥을 넘어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대건설시기,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천만군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하나로 잇닿아있다.

당이 결전에로 부르면 피끓는 가슴으로 뚫뚫는 적의 화구도 막고 당이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요구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끝까지 만들어내고 당이 어렵고 힘든 초소에로 부르면 정든 고향을 뒤에 두고 서슴없이 전야로, 바다로, 탄전으로, 개발지로 달려가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이런 인민이 있어 우리 혁명이 모진 풍파속에서도 앞으로만 전진하고 우리 조국이 오늘의 높이에 올라서게 된것이 아니겠는가.

《물불을 가리라 당의 부름에!》, 이것이 우리 인민의 혁명적키질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깊이 새기고 삼지연군꾸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특히 청년들이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용약 떨쳐나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 귀중한 청춘시절을 백두대지에서 흘리는 충정의 땀방울로, 혁명의 전구에서 세우는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다.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더욱 훌륭해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끊임없이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집단주의정신의 체현자들이다.

집단주의정신은 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것은 우리 사회의 본태이고 대풍모이다. 사회주의의 위력은 곧 집단주의위력이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지난해에도 우리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승리의 바탕에는 집단주의위력이 놓여있다. 온 나라에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쳐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전형단위들이 수많이 때출되였으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기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서 수많은 만리마기수들이 태여나고 강선땅의 《치녀어머니》와 같은 미풍선구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전체인민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집단주의정신은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발휘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인민을 낳는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우리 천만군민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는 자양분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시는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열과 정은 인민의 영원한 생명수이며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정과 절대적인 신뢰심은 일심단결의 초석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유철

최대의 애국유산

20여년전의 어느 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의 질문을 받으시였다.

공화국에서는 자기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가 건설되고있는데 귀국의 사회주의건설형편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주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가 끝없는 전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주의!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한없는 긍지에 넘칠수록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는 새 세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기틀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은 전인미답의 길이였다.

미제와의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고전을 따른다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혁명을 하자면 자본주의적발전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진다.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가?

주체43(1954)년 12월초 어느날이였다.

밤깊도록 집필에 전념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고 의논할 문제가 있으니 래일 아침 만나자고 하시였다.

다음날 아침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 들어서니 책상우에는 그이께서 밤새워 쓰신 원고들이 펼쳐져있었다.

또 한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가 어려와 일군은 거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흔연하신 어조로 지금 글을 하나 준비하고있는데 낮에는 회의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니 어디 글을 쓸 사이가 있는가, 어제 밤에는 생각이 집중되여 기본골격을 다 세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새해 1955년도를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환의 해로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글을 쓰고있는데 동무의 생각을 좀 들어보자고 하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오늘의 정세로 보아 이제는 우리가 사회주의혁명에 본격적으로 들어설 때가 되였다고 보는데 동무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일군의 견해를 물으시였다.

전후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는 사회주의로 나가야 한다,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원대한 구상을 하나하나 정책화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러나 우리 당안에 기어들었던 나쁜 놈들은 나라가 통일되지 못했는데 북반부만 사회주의를 하겠는가, 그러면 조선혁명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겠는가, 공업화도 하지 못했는데 협동화를 한다는것은 또 무엇인가고 악랄하게 시비해나섰다.

일군이 이런것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수령님, 인민들은 사회주의혁명이란 말은 잘 몰라도 다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정책을 세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우리 나라가 처한 환경을 잘 분석해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쓰고있는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글을 빨리 완성하겠다고 하시였다.

주체44(1955)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드디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조선혁명이 마침내 사회주의라는 표대를 로선으로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사변은 이렇게 마련되였다.

끝없는 사색과 탐구로 집필하신 4월테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조선혁명은 힘차게 전진하였다. 사회주의협동화도 사회주의공업화도 단숨에 해제끼였다.

우리 조국은 주체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세계가 놀라움속에 바라보는 인민대중이 주인된 나라.

이것이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의 애국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우리모두가 몸과 마음 다 바쳐 가꾸고 빛내여야 할 우리의 사회주의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자체로 농사를 지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비결

최근년간 안악군 일군들의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강원도정신으로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안악군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심에 넘쳐있다. 그것은 최근년간 최고수확년도수준돌파, 다수확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 얻은 귀중한 경험이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우리 농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다. 안악군사람들은 그 진로를 따라 힘차게 달려 지난해에는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여 전국의 앞장에 설수 있었다.

안악군이라고 다른 군들보다 농사조건이 더 좋은것은 없다. 사람도 그 사람, 땅도 그 땅인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는가.

군당위원회의 기본임무에 충실하자

세해전 2월 나라의 모든 군들에서는 군책임일군으로부터 농장원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를 다지였다. 하지만 그 수행결과는 달랐다. 무엇때문인가.

그 대답을 안악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찾아보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군당위원회의 기본임무는 자기 군에서 농사를 잘하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바로 이 기본임무를 틀어쥐고 표술을 찾아 완강하게 실천한것이 이곳 군당일군들의 장점이다.

군당위원회에서 첫자리에 놓고 진행한것은 관리위원장들과의 사업이였다.

두해전 초가을 군안의 전반적인 농사작황은 시원치 못하였다. 하지만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정보당 10t이상의 소출이 예견되는 포전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처럼 심한 격차가 생겨난것은 무엇때문인가.

군당위원장 리제식동무는 여러 관리위원장들을 만나보았다. 그랬더니 작황이 좋은 단위의 관리위원장들은 이런저런 기술적대책만 세우면 다음해에는 풍작훈을 무를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단위 관리위원장들은 하늘탓, 비료탓을 내들었다. 군당위원장의 가슴은 섬찍했다. 보신주의, 매해 주의에 빠진 이런 관리위원장들이 있다면 분조장, 작업반장은 물론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찬물을 끼얹고 창의창발성을 짓누를것이였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였다.

(관리위원장의 실력이자 그 단위의 실적이다. 그렇다면 군당위원회의 기본임무수행에서 첫자리에 놓아야 할 과업은 관리위원장들과의 사업이 아니겠는가.)

군당위원장은 다시금 력사적인 서한을 자자구구 새겨보았다.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경제기관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며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옥같은 명제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눈앞이 환해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군당위원장들이 나라의 200분의 1을 책임지고있는것만큼 자기 군의 농사를 잘한다면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게 된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달아올랐다.

그후 열린 협의회에 이 문제를 상정시킨 군당위원장은 농사에서 위자리를 차지한 관리위원장들도 새로 임명되였을 때에는 3년안에 앞선 단위로 만들 결의를 다졌고 노력도 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것이 그들탓만인가, 아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의 기본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 군당위원회의 사업에 있다고 그루를 박았다.

새 출발을 할 결의에 넘친 그들은 협의회관에 두가지 개선대책을 세웠다. 하나는 관리위원장들의 결함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교양사업이였고 다른 하나는 그 후비선발육성을 다그치는 사업이였다.

농사에 품을 들이면 풍년이 들듯이 사람도 품을 들여 키워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대한 군당책임일군들과 해당 부서 일군들은 몇달동안 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후 일군들의 준비정도를 료해하고 결정적인 대책을 취했다.

특히 일군들속에서 사상정신적으로 견실하고 조직전개력이 있으며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한 일군들을 찾아보았다. 그다음 이들속에서 대중평가가 좋은 일군을 선정하였다.

덕성협동농장의 경우를 례들수 있다. 이 협동농장은 경지면적이 커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단위의 하나였지만 농사에서 늘 뒤자리를 차지하군 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과장, 다른 협동농장의 기사장, 관리위원장사업을 하는 과정에 모든 면에서 준비된 한 일군을 이곳 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게 하였다.

당해에 그 은이 나타났다. 농장적으로 정보당 알곡을 10t이상 생산하고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여온 도를 놀래웠던것이다. 이처럼 제로 치듯 선발된 관리위원장들은 충실성과 실력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자기 협동농장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군당위원회에서 사람들을 준비도에 맞게 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일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 사업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이 리당위원장들과의 사업을 더 강화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언제인가 어느 한 협동농장의 일이 제대로 안되고있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그 농장에 내려간 군당책임일군은 실태를 료해하고 관리위원장이 아니라 리당위원장을 엄하게 질책하였다.

《제 자식의 결함을 고쳐주기 위해 속을 썩이는것이 바로 어머니가 아닙니까.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어 자기 농장의 농사를 잘 짓게 하는것이 리당위원회의 기본임무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일은 리당일군들을 각성시켰다.

우량종자도 땅이 좋아야 알찬 열매를 맺는 법이다. 하물며 큰 도랑과 뜨거운 인정미를 지녀야 할 당일군들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리당일군들은 이렇게 자기 사업을 돌이켜보고 3위1체를 보장하면서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 뛰였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에서 일하던 일군들로 리당위원장대렬을 꾸려주기 위하여 진행한 사업도 좋은 결실을 안아왔다.

주체농법을 만리마의 고삐로 틀어쥐고

안악군은 황해남도의 알곡생산에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는 덩지큰 다수확군이다.

따라서 군일군들이 농사작전과 지휘를 잘못하면 한개 도 아니 나라의 쌀독이 빌게 된다.

몇해전 다음해농사대책안을 검토할 때였다. 일부 협동농장들에서 여러가지 우량품종을 심기만 하면 수확고를 올릴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그 배치문제를 소홀히 하였다는것이 알려졌다.

그때 경영위원장 지상만동무는 이 문제를 협의회의 중요한 론의점으로 내세우고 이렇게 강조하였다.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자면 주체농법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우량품종을 우리 군의 지대적특성에 맞게 정확히 배치하는 문제가 가장 선차적입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다시 자자구구 새겨보았다. 자연기후조건이 지역마다, 농장마다 다르고 농장안에서도 포전마다 차이가 있는것만큼 어떤 작물과 품종을 심는것이 실리적이겠는가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가장 알맞는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이 되새겨졌다. 한 점을 바로가진 일군들은 품종배치문제를 파고들었다.

논벼인 경우 지력수준이 같았지만 정보당 수확고는 수백kg이나 차이나는 포전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료해한 결과 논벼품종이 서로 다른데서 생겨난 차이라는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지력이 높다고 하여 아무 우량품종이나 배치하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고려해야 할 점은 또 있었다. 지력이 보통인 포전에서 정보당 수확고가 떨어지는 우량품종이 있는 반면에 예견치 않게 수확고가 올라가는 우량품종도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근적으로 정보당 200kg씩 올린다면 그 량은 수천t으로서 한개 협동농장의 논벼생산량과 거의 맞먹는것이였다. 이 사실앞에서 일군들이 받은 가책은 컸다.

그후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지혜를 합치는 과정에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토양분석자료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지력상태에 맞게 3가지 부류로 나누어 시험포전을 만들고 우량품종을 재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동농장기술일군들과 함께 해마다 시험결과를 분석종합한데 기초하여 다음해품종배치계획을 바로세우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결과 지난해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비약적인 알곡증산과를 안아오게 되였다.

군일군들의 사업에서 돋보이는것은 과학연구성과들을 농업생산에 대담하게 받아들인것이다.

군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원그루근모에 의한 소식재배방법을 선택하였다.

여러가지 조건 즉 기후적산온도와 품종별생육적산온도, 포전규모와 지력상태, 로력과 기술력량 등을 정확히 타산하여 군의 실정에서 이 방법이 최고의 수확고를 낼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것이다.

군에서는 결국 이 재배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였다. 가을에 그 우월성이 확증되였다. 정보당 10t이상의 논벼를 생산한 포전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나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던것이다.

군식물방역소키술자들이 몇해째 낡은눈알기생벌과 쏙, 선충을 리용하여 병해충구제효과를 더 높이려고 애쓰고있던 때였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이 방법이 화학농약을 쓰는것보다 못하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였다.

그때 군책임일군들은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라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며 주체농법의 중요한 요구이기때문에 누구도 홍정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 일군들의 그릇된 처사를 제때에 바로잡아주었다. 그리고 이곳 기술자들이 이 분야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고무해주면서 먼 앞날을 내다보며 생산과 과학연구사업을 동시에 내밀수 있도록 개건목표를 높이 세워주고 연구설비, 자재보장을 앞세웠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생산과 연구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식물방역소에서는 지난해에 1만정보가 넘는 논밭에 기생벌을 놓아주어 강냉이와 논벼에 큰 피해를 주는 대벌레에 대한 구제효과를 훨씬 높이 많은 화학농약과 기름을 쓰지 않고 로력도 절약하면서 정보당 수백kg의 알곡을 증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또한 쑥을 주원료로 하는 식물성농약생산과 리용, 선충을 리용하는 지하해충구제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화학농약구입에 들던 막대한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논벼, 강냉이생산을 더 늘이게 되였다.

과학농사성과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메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군책임일군들은 대담하게 결심하고 제일 컬린 수십t의 철관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으며 군관개관리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국가적투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던 근 1 000m길이의 양수철관제작설치를 해제껴 포전마다 생명수가 철철 흘러들게 하였다.

군농기계작업소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여러가지 능률적인 농기계생산을 다그치고 부속품생산을 늘여 종합적기계화실현에 이바지한것도, 군종축장의 종자돼지생산을 늘이고 협동농장들의 축산작업반, 비육분조들의 생산토대를 잘 꾸려놓아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온을 내게 함으로써 지력을 높인것도 다수확을 내는데서 큰 몫을 하였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여

안악군 일군들의 사업을 분석해보면 일관하게 틀어쥐고 내민 사업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휘되도록 한 사업이다.

군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과 방도를 깊이 연구하고 3가지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었다.

첫째로 분조장대렬을 잘 꾸려주고 그들이 자기 분조를 전형단위로 만들게 하는 사업이였다.

몇해전 가을 군당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그 전해에 뒤떨어졌던 분조가 단연 앞서게 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알아보니 역시 사람문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서한에서 당에 충실하고 애국심이 높으며 기술지식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로 분조장대렬을 꾸릴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이 얼마나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증시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 일군들과 모든 리당일군들이 이런 견지에서 준비된 대상들을 선발하여 분조장대렬을 꾸리는 사업에 품을 들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분조장의 5가지 임무에 충실하도록 그들을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대추협동농장에서 지난 시기 농사에서 제일 뒤떨어졌던 제5작업반과 제1작업반 2분조를 전형단위로 선정하였을 때였다.

군일군들은 종전과는 딸리 도와주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단위가 자체의 힘으로 전형단위가 되도록 방향을 대주고 편향을 바로잡아주었다.

이 사업은 큰 실효를 나타냈다. 지난 시기 앞서나갔던 단위들을 더욱 분발시키니 좋았고 뒤떨어졌던 단위농장원들도 얼마든지 전형단위가 될수 있다는 신심에 넘쳐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더욱 좋았다.

경영위원장이 해마다 농민휴양소운영사업을 전적으로 도맡아하고있는 사실은 군일군들이 분조관리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게 하는 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한가지 실례이다. 푸짐한 식탁, 흥겨운 오락회, 맑은 호수에서의 보트놀이, 서해명승 구월산관광…

해마다 근 1 000명의 혁신자들이 휴양생활을 하면서 쏟아져나온 이런 자랑들은 온 군에 좍 퍼져 아이들까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빨리 혁신자가 되라고 조르고있다니 어찌 분조가 강해지지 않겠는가.

여기에 군당위원회가 모범적인 분조장들과 농장원들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도록 이끌어준 사업은 우리 분조장으로 불리우는 모범분조장대렬을 더욱 높이고 분조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냈다.

둘째로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는 사업을 중시하였다.

농장원별포전담당분담을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한 사업을 보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우선 농장원당 경지면적을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나이와 성별, 건강상태, 준비정도와 기술수준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정하게 하였다. 또한 지력상태와 마을과의 거리를 고려해서 농사조건이 제일 불리한 포전들은 초급일군들과 신농군들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때 포전별등급을 대중의 의견이 없도록 규정하고 년초에 면적에 따른 알곡생산계획과 수매량, 분배몫을 정해주어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셋째로 현물분배를 정확히 하게 한것도 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긍정적인 점이다.

이느해 일부 작업반장들이 분배를 옳바로 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이 사실을 안 군책임일군들은 그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는데서 분배를 철저히 사회주의분배원칙대로 할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상기시키고 엄하게 추궁하였다.

《자기 령에가 중합니까, 농장원들의 리익이 더 귀중합니까.》

이 사실이 온 군에 쫙 퍼지자 모든 작업반장들, 협동농장일군들이 정신을 차렸다. 비록 회의는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가을철은 알곡생산계획수매사업에만 신경을 쓰는 때가 아니라 다음해 농사를 내다보며 농장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킬 방도를 찾는 계절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지난해 11월, 군에서는 선참으로 년말결기와 분배를 끝내였다. 이곳 군일군들의 사업은 분조관리제실시를 자체실정에 맞게 할 때, 중요하게는 농장원들의 심리와의 사업에 힘을 넣을 때 한정한정의 땅에서 최고의 소출을 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안악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게 되는 총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고 다진 명세가 실천으로 되게 하자면 당의 사상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는 일군, 높은 실력을 지니고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워 당정책을 무조건 걸사관철하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뜻깊은 올해의 만리마속도창조전에 떨쳐나선 안악군 일군들의 배심은 든든하다. 실천을 통하여 백배로 다져진 이런 신념이 있기때문이다.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이다!

특파기자 박 철
본사기자 래명호
본사기자 전명일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 일념안고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덕천시 운흥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안주시 운학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안주시 운학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사실 농장일군들이 올해농사차비를 잘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지만 다수확을 담보할수 있는 묘안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였다. 그때 관리위원장 김정식동무는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키우는데 보다 선차적인 힘을 넣을것을 제기하였다.

그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지난해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였지만 가을에 가서 소출에서는 차이가 났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생각이 깊었다. 품종도 비료량도 똑같은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를 놓고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내려가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소출을 많이 낸 작업반들에서 찾아보게 되는 한가지 사실은 농장원들이 모판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들을 환히 꿰뚫고있었던것이다.

현실은 과학농사에 대한 초급일군들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또한 아무리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과학적인 영농방법이라고 해도 농장원들이 깊이 파악하지 못하면 온이 나지 못한다는 귀중한 교훈도 함께 찾게 되였다.

일군들은 농장원들이 과학농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우선 작업반기술원들의 실무수준을 더욱 높여주는데 힘을 넣었다.

어기서 잘한것은 시험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과의 협동작전문제였다. 아무리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영농방법이라고 해도 작업반의 기술지도를 맡은 기술원들이 원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집행하면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때문에 농장일군들은 올해 전면적에 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데 맞게 년초부터 시험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과의 현게밑에 지난해 큰모재배방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대해 작업반기술원뿐아니라 작업반장, 분조장들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원리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파라알시기, 파라베우기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농장원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였으며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리적으로 알고 새해농사차비시작부터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게 되였다.

온 농장에 과학농사열풍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거름생산과 흙짤이전투에서 혁신의 불길이 타올랐다.

본사기자 정성일

결사관철의 신념과 완강한 실천력을 지닐 때

온천과수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수준을 높여 과일생산을 늘이며 전국도처에 건설한 남새온실과 버섯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최근년간 온천과수농장에서 남포시당위원회와 온천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해마다 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또한 농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과수원을 청춘과원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농장에서는 지난해에 수천t의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군군인들과 남포시안의 주민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면 이 농장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사색의 출발점, 기업전략의 핵

료목생산작업반에 힘을 집중하여 매해 우량품종의 무비루스과일나무모를 수만그루나 자체로 생산하고있는것도 과일생산에서 력을 발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였다.

농장의 일군들은 비료와 농약, 영농자재 등 나무모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일 급선무로 내세우고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어 충실한 과일나무모들을 키워내게 하였다.

이곳 일군들은 이 사업을 중심고리로 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함에 있어서 자주 강조나 하고 급할 때 여유로력을 총동원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지력제고와 종자개량에 일단 돌파구를 정한 이상 해당 작업반, 작업조성원들을 심집적으로 우대해주고 정치적평가에서도 앞자리에 세워줌으로써 그들이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자작성과 창의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였다.

결과 해마다 2월말이면 그해 농사차비를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과일농사에서 풍장훈을 무를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였다.

매해 3월초마다 어김없이 진행하는 작업반별농사차비품평회는 그해 농사준비상태를 검열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일군들은 농기구의 카지수와 량, 질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제점하고 우수한 단위와 락후한 단위를 엄격히 갈라 평가하는것을 전통화하여 누구나 농사차비를 소홀히 대할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농장적으로 60여종에 3만점이상의 농기구를 그른히 갖춘 조건에서 영농작업을 시작하였다.

결과 최근년간 해마다 높이 세운 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은 물론 수백정보의 과수밭을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로 갱신하였다.

일군의 진짜실력은 완강한 실천력

지난해 과일농사과정에도 예견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각종 농약의 부족으로 애를 먹기도 하였고 례년에 없던 무더위가 들이닥쳐 과일나무들의 생육에 큰 지장을 받기도 하였다.

임준혁, 조광철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은 맥을 놓고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하여 어려운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해나갔다.

부족되는 농약을 해결하기 위해 농장자체의 힘으로 생물농약을 생산하기로 결심한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농장의 일군들은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깊이 연구하고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생물농약을 생산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였으며 완강한 투쟁을 벌려 끝내 우리의 자원을 리용하여 많은 생물농약을 생산하였다.

이와 함께 효과성이 높고 값눅은 우리 식의 새로운 생물농약을 적극 받아들여 10여차의 생물농약뿌리기를 적기에 원만히 하였다.

그리하여 농약원가를 지난 시기보다 50% 낮추었다.

꽃가루묻혀주기작업과 열매솎음작업도 이곳 일군들이 지닌 자력자강의 정신과 완강한 기질을 엿볼수 있게 하는 좋은 실례이다.

수백정보나 되는 포전에 여러 품종의 과일나무꽃들이 피어나는데 수백만이 될지, 수천만이 될지 알수 없는 그 무수한 꽃들마다에 꽃가루를 전부 묻혀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지배인 임준혁동무는 수천만이 아니라 수억만에 달한다 해도 가지마다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하자면 반드시 꽃가루묻혀주기작업을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렇게 되여 농장의 매 작업반성원들은 물론 지배인을 포함한 매 관리성원들에게도 포전이 분담되여 꽃가루묻혀주기가 질적으로 진행되였다.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무더위를 이겨내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 누구나 자기의 하루사업총화를 어김없이 짓는 과정에 농장적인 꽃가루묻혀주기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열매솎음작업 역시 전투였다.

일군들은 과일의 품질과 수확고를 높일 목표밑에 열매솎음전투를 근기있게 내밀었다.

무더위가 들이닥쳤을 때에도 일군들은 맥을 놓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창안도입하여 과일나무들이 고온피해를 크게 입지 않고 수확고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곳 일군들은 농장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일신시키고 과원을 보호하며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로 과원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도 일관성있게 내밀었다.

사실 불리한 날씨가 지속되고 조건이 불리해지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나약한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당장 급한것도 아닌데 사무청사대보수와 온실건설은 뒤로 미루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과수농장을 전국의 모범농장으로 꾸리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라는것, 조건이 불리하다고 하여 중도반단하고 새 일감이 나섰다고 하여 뒤로 미루는 그런 오분열도식, 소방대식사업방법으로는 아무 일도 깨끗이 마무리할수 없다는것을 강조하고 건설 및 대보수전투를 줄기차게 내밀었다.

일군들이 복잡다단한 일감이 덧쌓이는 속에서도 면함없이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민 결과 농장의 면모는 불과보게 달라졌다.

혁명사적교양실과 과학기술보급실이 새로 훌륭히 꾸려지고 문화회관과 사무청사, 4작업반마을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였다.

실리가 나면서도 독특하게 건설된 남새온실에는 갖가지 남새들이 푸른 주단을 펼치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일신된 유치원과 학아소에서는 귀여운 아이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당정책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모든 일군들이 이들처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간다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내 조국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것이다.

특파기자 주창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의 은정 넘치는 평양초등학원을 돌아보고

영원한 태양의 품속에 우리 원아들이 안겨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2월 1일, 평양초등학원은 해솟는 바다와도 같이 설레이였다.

오늘은 오실가 래일은 오실가 원아들도 교직원들도 손꼽아 기다리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원에 찾아오신것이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이 다가오는 2월의 첫날 평양초등학원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는 우리 원수님의 가슴속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 얼마나 북받쳐올랐을것인가.

엄혹한 시련이 조국의 매 가정들에 가슴아픈 상처를 남기던 고난의 시기 원아들생각으로 밤잠도 잊으시고 친어버이의 정을 뜨겁게 기울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시였다.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어가며 원아들을 따뜻이 돌보시는 그이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의 세계앞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눈부시게 밝고밝은 내 조국의 래일을 가슴후덥게 그려보았다.

지난해말 경치좋은 바다기슭에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여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지켜주신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영원히 지켜가야 합니다. …

바로 이런 천만사연을 안고 원아들을 위한 또 하나의 행복의 보금자리인 평양초등학원이 일떠서게 되였다.

사람들은 아마 다는 모를것이다.

지난해 7월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시여 초등학원건설도 와닥닥 달라붙어 끝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형성안도 세심히 지도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그 얼마나 많은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를.

초등학원도 다름아닌 우리 원아들을 위한 귀중한 교정이였기에 그들에게 제일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고 우리 원수님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이제는 형성안을 보고 또 보시여 환히 익히신 초등학원이였지만 학원의 전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면서 평양중등학원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일떠섰는데 정말 보기 좋다고,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건설을 잘했다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였다고 그토록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러시면서 평양초등학원을 바라보느라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며 친부모가 되시여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이렇게 희한하게 건설된 학원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하시는 그이의 절절한 말씀을 들으며 동행한 일군들은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였다.

이날 교사와 기숙사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초등교육단위의 특성에 맞게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하였으며 각종 교구비품들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고, 원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조직과 집단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주며 입만기초지식과 체육예능교육을 충분히 줄수 있도록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 소년단실, 자연실, 음악 및 춤보급실 등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복도에 동화적이면서도 직관성과 과학성, 생동성이 보장된 여러가지 그림 등을 붙여놓았는데 모든 공간이 지식홀, 상식홀로 되였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학년 1반 교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두해전 1월 1일 평양애육원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였던 류송이와 진성이를 비롯하여 원수님을 어려차례나 만나뵈왔던 아이들이 그새 불라보시라고 이 학급에서 공부하고있었다. 또랑또랑 울리는 원아들의 목소리를 대견하게 들어주시며 국어수업을 참관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얼마나 뜨거운것이 차넘치였으랴.

풀풀하게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 그것은 더욱 젊어지고 아름다와지는 내 조국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실에 오래도록 머무르시며 교원의 교수방법과 교편물리용정형,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그들이 쓰고있는 학습장의 질에 대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하기에 꿈결에도 뵙고싶은 아버지원수님을 여러차례나 만나뵈온 복받은 원아들,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원수님은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더욱 깊이 새겨졌다.

계속하여 동심에 맞으면서도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꾸려놓은 기숙사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침실, 식사실, 리발실, 치료실 등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식료품창고에 여러가지 기초식품과 탕과류, 과일 등이 그득히 쌓여있을뿐만아니라 매주평이까지 달아놓았는데 불만 하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초등 및 중등교육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 고등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규정되며 인재강국화실현의 지름길도 당의 초등 및 중등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학원관리운영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원아들을 위해 귀중한 혁명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며 베풀어주신 우리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기에 다 적지 못한다.

몸소 의자에 앉으시여 원아들이 불편해하지 않겠는가를 가늠해보시던 그 손길, 교실의 온도까지 헤아려보시며 아이들이 더운 교실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던 다심한 그 은정…

평양초등학원을 돌아보니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갔다 나온것만 같다고, 원아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그날 현지지도를 마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우리 당밖에 없는것만큼 평양초등학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원아들이 설음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차는 떠나갔다. 두볼로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닦을념도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목메여 찾고부르며 원아들이 따라섰다.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언제나 깊이 마음쓰시며 어서 커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 영웅이 되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그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 원아들이다.

친어버이의 다심한 정을 매일, 매 시각 받아안으며 행복의 절정에 올라선 이들이기에 잠결에도 항상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는 꿈을 꾸고 원수님께서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마음속의 가장 큰 행복을 안고 사는것이다.

이런 위대한 품속에 우리 원아들이 안겨산다.

마음속그늘을 안고있던 원아들모두를 따뜻이 품어안아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는 태양의 그 빛발이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류의 등대로 영원한것이며 언제나 필승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명훈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이보다 더 큰 행복 세상에 또 어디 있으랴

얼마전 평양초등학원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더욱 세차게 울려준것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랜 시간 학원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실 때 눈물이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해에 하신 약속을 언제나 잊지 않고계신 우리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격정의 물목을 터쳐놓았던것입니다.》

학원일군인 윤정희동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을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생각은 깊어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을 혁명의 계승자,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 그들속에서 과학자도 나오고 군인도 나오며 영웅도 나오게 하여야 합니다.》

흔히 생활에서 사람들은 약속이란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한 나라의 령도자가 부모없는 원아들과 스스럼없이 사랑의 약속을 한 전례가 과연 동서고금 그 어디에 있었던가.

우리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을 만나시면 사랑의 약속을 하여주신다. 두해전 1월 1일에도 그이께서는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하시며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였다.

지난해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시였던 못 잊을 그날의 이야기가 삼삼히 떠오른다.

수 필

약 속

그날 평양중등학원건설장옆을 지나다닐 때마다 원아들의 밝고 창창한 글읽는 소리,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날을 기다렸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바라신것이였으면 우리 원수님 원아들에게 멋젊이학원을 안겨주게 되였으니 하늘의 별을 따온것 같이 기쁘다고,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리게 되였다고 하시며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으랴.

하건만 떠나실 때에는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이제 원아들이 새 집에 이사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때 꼭 다시 찾아와 원아들의 글읽는 모습도 보고 체육경기도 보아주시겠다고, 그날 원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겠다고 또다시 사랑의 약속을 하여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과 하시는 약속에는 뜨거운 친어버이의 정, 그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영웅으로,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위인세계가 깃들어있다.

이 땅에는 단 한명도 마음속 그늘을 안고 사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분,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사회주의의 이 강산을 더욱 밝아지게 하시려고 불철주야로 사색을 펼치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지난해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으로 만사람을 울리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원아들은 모두 당의 아들딸들입니다. 나는 아들딸부자가 되였습니다. …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신 그날에도 스스럼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겨드는 아이들, 하나같이 씩씩하고 명랑한 원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시였으면 우리 원수님 오랜 시간 학원에 계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으랴.

세상을 둘러보면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수많은 고아들이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시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세상만물을 다 받아안은 우리 원아들은 꽃처럼 밝게 웃으며 위대한 아버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 불멸의 화폭은 전하여주고 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원아들은 오늘만이 아니라면 앞날에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게 되리라는것을.

원아들의 가슴마다에 끝없는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고 앞날의 박사, 예술인, 장령, 영웅이 될 소중한 꿈을 키워주는 우리 원수님의 약속!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의 그 사랑, 그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우리 혁명의 또 한 세대가 불라보게 성장하고있거니.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과 정을 다해 키워가시는 우리 후대들이 있어 내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며 우리의 생명이고 신념인 사회주의는 최후승리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으로 울리는 원아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이를 가슴벅차게 확증해주고있었다.

본사기자

원아들의 가장 큰 자랑

나날이 비약하는 우리의 건축술을 한껏 과시하며 단 몇달동안에 멋젊이건축물로 솟아오른 평양초등학원.

교사와 기숙사, 여러동의 보조건물들, 인공잔디를 깐 운동장과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하여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건축미학적, 교육학적, 위생학적 요구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실현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렬한 충격을 안겨준것은 아마 2학년 학생들의 청높은 목소리였을것이다.

《애육원때부터 지금까지 우린 아버지원수님을 네번씩이나 모시고 두번이나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저는 애육원을 찾으시였던 아버지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우리 초등학원을 찾아주신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키가 컸다고 하시며 기뻐하시였습니다.》

…

잘 익은 사과알마냥 발그스름한 자기의 두볼을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다독여주시였다는 자랑, 그이앞에서 줄넘기를 하여 키를 드렸다는 자랑, 자기의 민들레학습장을 보아주셨다는 자랑 등 원아들의 자랑은 정녕 끝이 없을상싶었다.

소년시절에는 류달리 자랑이 많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원아들처럼 그렇듯 생면부지의 사람들앞에서도 아무런 주저없이 승벽내기로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아마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할것이다.

그 애들처럼 세인이 흠모하는 위대한 아버지의 다심한 사랑을 그렇듯 많이 받아안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희한한 궁전들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나가는 복받은 아이들이 더는 없기에…

매일같이 달라지는 꿈이야기

창밖의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바라보느라면 아버지원수님 계시는 곳으로 훨훨 날아가고싶어 앞으로 크면 비행사가 될 명상에 잠기고 오락회시간이 되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안는 이름난 가수가 될 꿈을 꾸며 인공잔디 축구장에서 볼을 찰 때에는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는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될 희망이 넘쳐흐른다.

무엇이나 척척 만들어내는 과학자가 되겠다고도 하고 자기들의 집처럼 멋진 궁전을 온 나라에 일떠세우는 건축가가 되겠다고도 한다.

2학년 1반에서 공부하는 김진성학생의 일기장을 통해 본 매일같이 달라지는 그의 꿈과 희망은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그러니 다른 학생들의 일기장에 들어있는 꿈이야기들을 다 합쳐놓으면 또 얼마나 많겠는가.

아이들의 꿈은 그들의 행복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라고도 할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세상에 부러움을 모르는 천진란만한 아이들만이 자기가 바라는것을 다 성취할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일것이다.

그래서이리라.

1000여점의 이채로운 교육교양직관물들로 벽체와 천정을 꽉 채운 동화세계와 같은 행복의 보금자리, 사랑의 궁전에서 우리의 행복동이들이 자기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터놓고있는것은.

아버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도서들을 비롯한 각종 책들이 꽉 들어찬 도서보관대출실과 멋진 전자도서열람실, 다기능화된 교실들은 말그대로 원아들의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는 배움의 요람이다. 문만 열면 사태처럼 쏟아져내리는 축구공과 롱구공, 배구공들을 들고 춤다하게 뛰노는 운동장과 놀이터들은 그들의 꿈을 현실로 펼쳐주는 활무대이다.

원아들을 위해 10여명의 로리사, 5명의 의료일군, 여러명의 세탁공을 비롯한 전문환리성원들과 교원들을 포함한 130여명의 어머니들이 있으니 우리 원아들보다 더 높이 떠받들리우고있는 아이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으랴.

원아들아, 마음껏 꿈을 꾸거라. 바라는 모든 꿈을 다 이루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너희들을 따뜻이 품어안고있단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높이 부르며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오늘의 이 행복을 너희들의 아름다운 꿈이야기들로 세세년년 길이길이 전해가거라.

본사기자 한경철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폐막

지난 2월 1일에 개막되였던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 감독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훈련의 나날에 다져온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려 모든 경기들을 자신만만하게 운영해온 4.25체육단 선수들이 롱구와 배구종목의 남, 녀경기들에서 우승하였다.

기관차체육단 남자선수들과 평양체육단 녀자선수들이 롱구경기에서 각각 3등을, 평양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배구경기에서 각각 2등을, 압록강체육단 남자선수들과 기관차체육단 녀자선수들이 배구경기에서 각각 3등을 하였다.

폐막식이 27일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있었다.

리룡남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이번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한 단체들의 종합순위가 발표되였다.

종합 1등을 쟁취한 대성산체육단이 순회우승컵을 수여받았다.

장자산체육단, 로대산체육단이 각각 종합 2등과 3등을 차지하였다.

김일국체육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존엄높은 체육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체육인들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였다고 말하였다.

모든 선수, 감독들이 훈련과 경기들에서 우리 식의 전술체계를 더욱 완성해나가며 세계를 놀래우는 만리마시대의 체육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경기대회 상징기발이 내리워졌다.

【조선중앙통신】

오늘도 돌격전의 앞장에서

2.8직동청년탄광 12갱채탄2중대장 고기선동무는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나라의 석탄전선을 지켜 자신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참된 애국자이다.

수십년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직동탄전에 제대배낭을 푼 그날부터 그는 채탄공, 소대장을 거쳐 채탄중대장으로 일해오면서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으로 탄부들을 이끌어 해마다 중대가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비록 초소는 달라졌지만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군사복무의 그 나날처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고있는 고기선동무를 가리켜 탄광의 많은 사람들은 제대군인채탄중대장, 진짜배기탄부라고 정답아 부르고있다.

지난해의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나날에도 그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앞장에서 뚫고나가는 결사관철의 기수가 되여 돌파구를 열어제꼈다.

채탄막장에서 뜻하지 않게 물동이 터졌을 때였다. 새 채탄장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자 이렇게 편을 들게 된것은 우리 재천철도국의 수송전사들을 위해 진심을 바쳐가고있는 고마운 일군들을 자랑하고싶어서입니다.

지난 1월 어느날 우리 철길중대에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와 함께 철길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과 작업공구들을 가지고 찾아온 일군들이 있었습니다.

세차게 일어번지는 실력경쟁열풍

황북종합대학 교원대학에서

얼마전 황북종합대학 교원대학을 찾았던 우리는 교정에 실력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원양성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몇해전에 새로 임명된 대학일군들앞에는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었다. 당시 대학의 교원들속에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에서 이렇다할 큰 성과들이 이룩되지 못하고있었다.

대학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일군들은 생각이 많았다. 지난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진행된 교수경연이나 경험발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군 하던 대학이 지금은 왜 뒤자리로 밀려나고있는가. 그들은 그 원인을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데 맞게 젊은 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이 따라서지 못하고있는데서 찾았다.

해결방도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대학일군들은 교정안에 실력경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결심을 하였다. 그때 이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강좌장이상 일군들이 실력경쟁의 앞장에 서서 자기 학부, 자기 강좌를 이끌고나가도록 한것이다.

대학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회의를 열고 학부장, 강좌장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는 현상을 놓고 강하게 총화한데 이어 교육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조직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학부장, 강좌장들은 혁신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한 주되는 리유가 자신들의 실무수준이 낮은데 있다는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분발하기 시작했다. 대학에서는 그들의 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실리있고 우월한 교육방법을 창조하고 경험을 발표하는 사업을 조직하였다.

제일 훌륭한 교수방법을 먼저 내놓기 위한 경쟁열의가 높아가는 속에 일군들은 저마다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 이악하게 달라붙었다. 대학일군들은 그들의 안목을 띄워주기 위하여 앞선 교육단위들의 본보기강의를 수록한 록화편집물들을 보여주고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을 창조한 강좌장이상 일군들을 전체 교원들앞에서 출연시키고 경험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실례로 류순옥동무가 창조한 새 교수방법과 김현옥동무가 학급전원을 최우등생으로 키우고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던 경험은 교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들의 모습과 그들이 창조한 새 교수방법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난 시기에 낡은 틀에 매여 교수활동을 해왔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게 된 교원들은 심각한 교훈을 찾고 분발해나섰다.

고성심, 류영철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군들은 앙양된 교원대중의 열의를 더 한층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우선 매 강좌마다 우수한 교원들을 준비시켜 본보기교수를 창조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교원들속에서 경쟁열의를 한껏 불러일으켰다.

본보기교수창조과정에 강좌의 모든 교원들은 우경함을 분석하고 창발적의견을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실력을 한계단 끌어올리게 되였다.

일군들은 강좌마다 교수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높은 교원들이 신임교원들을 맡아 이끌어주도록 하는 사업도 짜고듦으로써 전반적인 교원실력제고사업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지금도 강좌교원들이 지혜를 합쳐 신임교원들이 새 교수방법을 창조할수 있게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모의강의를 반복하여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교수자질을 높여주는것은 교정의 훌륭한 기풍으로 되고있다.

교원들의 실력이 뛰여오른 결과 지난해 대학에서는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수많이 창조도입하게 되였으며 여러명의 교원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토론회와 전시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고 10여명의 교원들도 10월8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로 성장하였다.

대학일군들은 학생들의 실력문제도 역시 경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이들은 대학적으로 실력이 높은 교원들을 선발하여 과외시간에 기초지식이 약한 학생들을 배워주기 위한 사업과 강좌교원들이 실력이 낮은 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밀려나갔다.

이와 함께 주에 1차씩 학과경연을 조직하여 그 결과를 속보판을 통해 알려주고 최우등생축하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는 등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이들처럼 당에서 가르치준대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교정안에 실력경쟁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간다면 반드시 비약적인 교육성과가 이룩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그 진정이 뜨겁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난 기간 우리 철길중대를 자주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두팔걷고나서 도와주던 리일섭동지를 비롯한 단위 일군들이였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철길의 기술상태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알아보고 그길로 수심리길을 걸으면서 여러가지 물자들을 해결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우리 철길중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기중대전물을 옮길 때에도 일군들은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해결해주었으며 석탄을 실은 화차에서 석탄이 조금씩 흘러내리는것을 보고는 즉시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하여 밤새워 전지불을 켜들고 그것을 수리한 다음에야 떠나보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리일섭동지가 어느 한 구간의 철길을 밟아보다가 쓰러진것을 보고서야 그가 지금까지 중병으로 신고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정말이지 자기 한몸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뜨거운 진정을 다 바쳐가는 이런 일군들을 널리 자랑하고싶습니다.

개천철길대 구장철길중대 중대장 김기철

만고역적일가의 죄악에 찬 행적을 파헤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고발장

거대한 초불용암이 박근혜탄핵이라는 무서운 징벌의 활화산을 뿜어올렸다.

온갖 범죄와 악의 소굴인 청와대가 격노한 민심의 불길에 휩싸인 속에 박근혜일가족속들의 역스러운 흉상들에 저주와 규탄의 무지비한 새례가 들씌워지고있다.

시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악정, 무지무능과 부정부패로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앙과 치욕을 가져다준 박근혜년과 천하의 악녀들 배설한 역적가문에 대한 치솟는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박근혜년의 일가족속과 같은 더러운 역적무리가 민족안에 생겨나 활개치면 어떤 화난과 수치를 당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가를 교훈으로 력사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들춰수록 악취가 풍기고 번질수록 증오의 피가 끓어번지는 《유신》일가의 만고죄악을 폭로하는 이 고발장을 내보낸다.

1. 역적조상이 배설해놓은 매국노후손들

우리 민족사에는 살아도 애국에 살고 죽어도 애국에 한몸바치는것을 제일가는 가풍으로 물려온 애국충신 가문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순결무구하고 의로운 우리 민족안에 박근혜의 일가족속과 같이 시대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고 매국배족의 대가로 부귀와 향락을 누리며 죄악만을 저질러온 천하역적가문이 생겨난것은 수치가 아닐수 없다.

대끝에서 대가 나오고 독초의 뿌리에서 독초가 자라듯이 역적조상을 둔 가문에서는 매국노가 나오기마련이다.

박근혜의 할애비 박성빈으로 말하면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일떠선 전봉준농민군을 진압하는데 앞장선 《공로》로 벼슬자리까지 하사받은바 있는 반역배이다.

이 역적조상에게서 박정희라는 특등매국노가 생겨났고 애비를 찜쪄먹는 박근혜를 비롯한 후예들이 꼬리를 이었다.

삼천리금수강산을 피바다에 잠근 침략과 살륙의 원흉인 왜왕에게 혈서까지 써바치며 《충성》을 다짐한 조선사람 아닌 《황국신민》 다까끼 마사오가 바로 박정희역도였다.

이 나라 애국자들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며 풍찬로숙할 때 유격대 《토벌》에 피눈이 되어 날뛰였고 일본륙군대신의 《상》까지 받은 유일한 《반도인사무라이》, 박정희의 친일매국행위는 5.16군사쿠데타로 남조선에서 《정권》을 강탈한 후 더욱 로골화되였다.

《일본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래일이 없다.》, 《제2의 리완용이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한일협정은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떠벌여댄 박정희역도의 너두리는 오늘도 우리 민족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손해배상을 받아낼 권리마저 포기한 예속과 굴욕의 상징인 《한일협정》체결은 《을사오적》도 낯을 붉힐 천추에 용납 못할 친일매국죄행이다.

《리완용이 영광의 력사를 열어놓았다면 우리의 협정은 향후 백년의 영광의 력사를 열것이다.》고 떠벌어린 박정희역도의 죄행을 천년세월이 흐른다고 용서할수 있겠는가.

박정희역도의 친미사대행위는 친일매국을 훨씬 초월하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피로 얼룩진 친일의 속옷우에 친미의 덧옷을 걸친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하기 바쁘게 미국상전을 찾아가 《타국에 와있다는 기분은 전혀 느낄수 없다.》, 《귀국이 우리를 통솔한다는데 대하여 신에 감사를 드린다.》는 역겨운 망발을 늘어놓았다.

마치 미국의 양아들마냥 미군은 《외세가 아닌 원조자, 보호자》이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의 리권을 희생시키며 통일을 흥정하지 않을것》이라는 얼빠진 궤변도 부끄럼없이 내뱉은 박정희역도이다.

역도놈이 미국상전에게 추종하며 남조선을 통채로 미국의 잉어상품시장으로 내맡기고 수십만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월남전쟁터에 내몰아 생죽음을 당하게 한 사실은 죄악의 기록장에 생생히 남아있다.

현대판노예문서인 남조선미국 《행정협정》 역시 박정희역도가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섬겨바치기 위해 상전과 맺은 굴욕적인 《조약》과 《협정》들중의 하나이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들에 공개적으로 설치한 성매매업소들을 《굴뚝없는 산업》으로 묘사하고 양키호색광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남조선녀성들을 《딸라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모독한 망발에 어느 누군들 치를 떨지 않겠는가.

박정희역도의 추악한 친일친미매국행적은 박근혜년을 비롯한 그 후예들에 의해 그대로 이어졌다.

력대 괴뢰통치배들치고 외세에 매달리지 않은자가 없었지만 박근혜년처럼 사대매국에 환장이 되여 본떨어대다 못해 《대박》이라는 저속한 낱말로 민족의 신성한 통일념원을 모독하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민족의 절절한 열망을 장사치들이나 도박군들이 쓰는 《대박》이라는 천박하고 저속한 말로 모독한 박근혜야말로 몸뚱아리에 피가 아니라 구정물만 흐르는 천하의 악한이다.

동족대결광녀 박근혜는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여 술판, 먹자판을 벌놓고 반통화국삐라살포를 극구 무추겨댔는가 하면 내외의 눈이 무서워 선임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모략기구까지 서울에 끌어들이였다.

2015년 8월에는 군사분계선에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도발하고 우리측 지역에 포까지 쏘아대던 치마두른 전쟁광녀가 지난해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완전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계기로 완전히 본떨을 잃었다.

제 정수리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것처럼 멘접을 하며 괴명박역도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6.15의 옥동자, 북남관계의 마지막보루인 개성공업지구까지 폐쇄한것은 콩크리트장벽으로 조국강토를 두동강낸 애비도 찜쪄먹을 치떨리는 반통일대결망동이였다.

1년 365일 매일같이 미일상전과 야합한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있는것도 북침전쟁소동에 미쳐돌아가던 애비의 광기그대로이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다 못해 《탈북선동》나발까지 불어댄것도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개꿈을 꾸던 박정희역도의 씨종자만이 저지를수 있는 불망종짓이다.

이런 천하에 둘도 없는 극악한 반통일대결악녀이기에 격노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오늘까지도 즐개들을 부추겨 《대북독자제재》를 짖어대며 북남관계에 회복불능의 대못을 더 깊숙이 박으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박근혜의 극악무도한 동족대결광기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사상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박정희역도와 그 딸년이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짓밟고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반민족죄악을 천년이 간들 용납할수 있겠는가.

2. 애비와 딸년이 감행한 극악한 반통일죄행

조국통일, 이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민족최대의 숙원이다.

피눈물나는 우리 민족분렬사의 갈피마다에는 나라의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박정희역도와 박근혜년의 죄악의 행적이 지울수 없는 자욱으로 찍혀져있다.

박정희역도로 말하면 불법비법의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그 순간부터 《반공》과 《반북》을 《제1국시》로 내세우고 명줄이 끊어지는 시각까지 《피는 깔아도 더불어 살수 없는것이 북이다.》, 《북은 우리와 같은 민족일수 없다.》, 《멸북, 멸공만이 살길이다.》고 고아댄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였다.

1968년 1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였을 때 박정희역도는 꼬리에 불달린 미친개마냥 분별을 잃고 전쟁광기를 부려댔다.

당시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우리의 초강경의지에 질겁한 미국은 어쩔수 없이 유화책을 내들었다.

이런 기미를 알아챈 박정희역도는 북이 반드시 《직접한 응징》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궤쳐대면서 미국대통령에게 군사적조치를 취해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민족분렬사상 북과 남이 처음으로 합의한 7.4공동성명문을 《한장의 종이장》으로 비하모독하며 동족대결과 민족분렬의 외통길로 정신없이 역행해온 통일의 원쑤가 박정희역도이다.

북남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무수한 모략사건들을 날조하고 이루 헤아릴수 없이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을 치떨리는 야수적고문으로 처형학살한 주범은 또 누구인가.

이 나라 강토의 허리를 끊어버린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은 박정희역도의 반통일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결국 박정희역도는 지은 죄로 하여 제명을 살지 못하고 꿰졌다.

오늘 동족대결, 체제대결에 환장하여 돌아치는 박근혜년의 발광은 애비 박정희역도도 아연할 지경이다.

청와대에 들어앉자마자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하는 동족대결, 체제통일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대북정책》을 흔들어 살수 없는것이 북이다.》, 《북은 우리와 같은 민족일수 없다.》, 《멸북, 멸공만이 살길이다.》고 고아댄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였다.

1968년 1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였을 때 박정희역도는 꼬리에 불달린 미친개마냥 분별을 잃고 전쟁광기를 부려댔다.

당시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우리의 초강경의지에 질겁한 미국은 어쩔수 없이 유화책을 내들었다.

이런 기미를 알아챈 박정희역도는 북이 반드시 《직접한 응징》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궤쳐대면서 미국대통령에게 군사적조치를 취해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민족분렬사상 북과 남이 처음으로 합의한 7.4공동성명문을 《한장의 종이장》으로 비하모독하며 동족대결과 민족분렬의 외통길로 정신없이 역행해온 통일의 원쑤가 박정희역도이다.

북남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무수한 모략사건들을 날조하고 이루 헤아릴수 없이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을 치떨리는 야수적고문으로 처형학살한 주범은 또 누구인가.

이 나라 강토의 허리를 끊어버린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은 박정희역도의 반통일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결국 박정희역도는 지은 죄로 하여 제명을 살지 못하고 꿰졌다.

오늘 동족대결, 체제대결에 환장하여 돌아치는 박근혜년의 발광은 애비 박정희역도도 아연할 지경이다.

청와대에 들어앉자마자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하는 동족대결, 체제통일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대북정책》을 흔들어대다 못해 《대박》이라는 저속한 낱말로 민족의 신성한 통일념원을 모독하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민족의 절절한 열망을 장사치들이나 도박군들이 쓰는 《대박》이라는 천박하고 저속한 말로 모독한 박근혜야말로 몸뚱아리에 피가 아니라 구정물만 흐르는 천하의 악한이다.

동족대결광녀 박근혜는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여 술판, 먹자판을 벌놓고 반통화국삐라살포를 극구 무추겨댔는가 하면 내외의 눈이 무서워 선임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모략기구까지 서울에 끌어들이였다.

2015년 8월에는 군사분계선에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도발하고 우리측 지역에 포까지 쏘아대던 치마두른 전쟁광녀가 지난해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완전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계기로 완전히 본떨을 잃었다.

제 정수리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것처럼 멘접을 하며 괴명박역도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6.15의 옥동자, 북남관계의 마지막보루인 개성공업지구까지 폐쇄한것은 콩크리트장벽으로 조국강토를 두동강낸 애비도 찜쪄먹을 치떨리는 반통일대결망동이였다.

1년 365일 매일같이 미일상전과 야합한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있는것도 북침전쟁소동에 미쳐돌아가던 애비의 광기그대로이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다 못해 《탈북선동》나발까지 불어댄것도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개꿈을 꾸던 박정희역도의 씨종자만이 저지를수 있는 불망종짓이다.

3. 독재가문이 세운 폭정의 《신기록》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13년 2월 세계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박근혜의 청와대입성소식을 보도하면서 《암살로 막을 내린 독재자의 후예》, 《독재자의 딸이 청와대로 회귀하였다.》 등으로 야유하였다.

세계언론계가 박근혜를 《대통령당선인》으로가 아니라 《독재자의 딸》, 《독재자의 후예》라고 보도할 정도로 박정희역도의 군사파쑈독재는 소름끼치는 악몽이였다.

원래 박정희역도는 코흘리개적부터 허리에 찬 일본도를 절커덕거리며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는 왜놈장교가 되는것이 소원이였다고 한다.

간신히 엄었던 보통학교 훈장자리마저 내던지고 일본군에 기어들어가 특등친일매국노의 기질을 보여준것도 그때문이였다.

불법비법의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후 18년간이나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수많은 각종 파쑈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을 조작하고 온 남조선땅을 철창없는 군사감옥, 자유와 인권의 대수난지역,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박정희역도야말로 네로나 히틀러, 무쏠리니와 같은 악명높은 세계적인 폭군들도 무색케 하는 희세의 독재광이였다.

권력유지에 환장이 된 독재광에 의해 《유신》독재기간에 무려 2 000여가지의 별의별 악법들이 조작, 개악된 속에서 중세기적인 고문과 처형을 받으며 무참히 숨져간 수천수만의 피해자들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쳐있다.

이러한 《유신》독재자의 후예이기에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앉았을 때 세상이 그처럼 경악을 금치 못하였던것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독재자의 악정을 반대하여 결결히 싸운 민주투사의 딸들이 국정의 전면에 나설 때 남조선에서는 악명떨친 독재자의 딸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비극이 빚어졌던것이다.

정치무대에 나선 목적이 애비의 《명예회복》에 있다고 거리낌없이 떠벌이는 박근혜년을 보며 사람들은 앞으로 박정희의 《유신》독재시대가 부활하지 않겠는가 하는 불길한 예감을 털어버리지 못하였다.

실제로 박근혜가 집권 전기간 한것이란 《박정희기념도서관》이요, 《박정희기념공원》이요, 《박정희민족중흥관》이요 하는것들을 꾸리는데 국민혈세를 랑진하며 애비의 독재통치를 미화분식하고 《유신》독재를 전면부활시킨것뿐이다.

수십년전에 잔인한 《유신》독재자가 《반공》과 《승공척결》을 《국시》로 내들고 온 남녘땅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면 오늘에는 《유신》독재자의 딸이 《제제수호》와 《종북척결》을 떠들어대며 남조선을 민주와 인권의 가장 참혹한 폐허지대로 만들었다.

정보원이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를 통가하는 무소불위의 존재, 독재통치권력, 파쑈통치의 총본산으로 되살아났으며 합법적정당인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당하고 진보단체인 전교조가 《종북의 심장》, 《해충같은 존재》로 몰리여 합법적지위를 박탈당하였다.

형형색색의 간첩단사건들을 날조하여 진보민주세력말살에 미쳐돌아가던 애비를 방불케 하는 박근혜년의 모략광기에 대해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말았던 한 변호사가 《내란선동죄목을 탄압의 구실로 내휘두른 대통령은 박정희와 박근혜뿐이다.》고 폭로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유가족들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폭력집회》로 락인되여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생존권을 요구해나선 무고한 농민이 피뢰경찰의 야만적인 물대포에 맞아 목숨을 잃는것과 같은 참극들이 끊길줄 몰랐다.

력대 괴뢰통치배들중에서 합법적언론말살책동에 제일 광분한것도 《민족일보》와 《자주민보》를 강제폐간시킨 박정희, 박근혜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정치인은 《대학생시절에 박정희유신체제를 반대하여 학생운동을 했는데 또 그 딸을 상대로 되진운동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개탄하였다.

이것은 박정희역도에 이어 파쑈독재부활로 남조선을 폭압살륙이 몰아치는 중세기적암흑천지, 민주, 민생, 민권의 가장 참혹한 불모지로 전락시킨 독사같은 박근혜년에 대한 쌓이고쌓인 민심의 분노와 증오를 그대로 대변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4. 가장 추악한 인간오작품족속

이 세상에는 명망높은 의학자가정, 재능있는 예술인가정, 체육인가정 등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가정들이 많다.

하지만 박근혜년의 역적일가는 하나같이 탐욕과 허영, 변태와 방탕으로 얼룩진 추악한 행실을 일삼아온것으로 하여 천하에 둘도 없는 인간쓰레기족속으로 만사람의 저주와 비난을 받고있다.

역도년의 애비인 박정희자체가 생겨날 때부터 온전치 못한 인간오작품이였다.

박정희를 배였을 때의 역도놈의 에미는 나이가 45살, 그래도 그 나이에 시집간 딸과 함께 임신한것이 부끄러운줄은 알았던지 락태하겠다고 간장을 한사발씩 마시고 앓아눕는다, 밀기울을 끓여마시고 까무라친다, 높은데서 뛰여내려 타박상을 입는다 하며 동네방네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그 모든 《간난신고》끝에 세상에 떠여져나온것이 박정희였다.

배속에서의 《신고》가 오죽했던지 허우대가 큰 애비나 형들과는 달리 까무잡잡한 상통에 체격도 초라한데다가 악바리근성을 가진 독종이여서 애당초 에미조차 사람들앞에 내세우기를 꺼려한 박정희역도였다.

박근혜년의 외할애비 륙종판이라는자 또한 흉물이라 아니할수 없는 작자였다.

총칭북도 옥천군의 유명한 친일갑부로서 그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자가용승용차까지 가지고 7 000여평의 기와집에서 흥청거리면서도 하도 욕심많고 린색하여 이름대신 《륙돼지》로 불리웠다.

본처외에도 여러곳에 7명이나 되는 첩들을 두고 20명이 넘는 자식들을 가지고있던 《륙돼지》의 딸들중의 하나가 박근혜의 에미 륙영수이다.

10년나마 함께 살아오던 본처를 하루아침에 저버린 박정희가 륙영수를 후실로 맞아들인것은 《륙돼지》의 두툼한 돈주머니에 욕심을 냈기때문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겨난 《유신》일가는 변태적인 생활을 일삼으며 추악한 인간오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박정희와 륙영수가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더러운 추물, 인간오작품들이 바로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 세 남매이다.

녀동생 박근령은 결혼 6개월만에 리혼하고 자기보다 14살이나 아래인것을 남편으로 맞아들인 변태적인 추녀라면 남동생 박지만은 잠옥행까지 한바 있는 마약중독자인데다가 자기보다 16살아래인 녀자와 결혼생활을 하고있는 비정상적인 인간이다.

박근혜에 대해서는 더 말할나위도 없다.

프랑스남자를 10여년간이나 시기로 두고 동거생활을 하였다느니,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와 치정관계를 맺고있었다느니 뭐니 하는 등 추문들은 제쳐놓고라도 처녀시절부터 저보다 40살이상이나 우인 최태민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왔다는 사실은 사창가의 창녀들도 얼굴붉힐 패륜과 방탕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그 최태민이라는 작자 또한 녀편네를 6번이나 갈아대고 사이비종교를 만들어내여 피뜨리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은 변태적인 추물이다.

《궁정동을 다녀간 박정희의 녀자는 200명이 넘는다.》고 피뢰중앙정보부장이였던 김재규도 말한바 있지만 《대통령》자리에 앉아있은 18년동안 녀자문제로 200건이 넘는 추문을 만들어낸 박정희역도이고보면 딸년이 그 방탕한 유전자를 착실히도 물려받은 셈이다.

이러한 박근혜족속을 어찌 정상상태의 인간들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에미 륙영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상복을 벗어던지고 애비와 서슴없이 짝을 이루어 《국모》행세를 한 딸년도 그러하고 애비란 놈은 녀편네대신 딸년을 데필이라고 데리고다니며 부부동내를 낸 인륜패덕의 무리가 바로 박정희, 박근혜년놈들이다.

더러운 목숨부지와 출세를 위해 친우들을 밀고하여 학살케 하고 본처와 제 자식까지도 서슴없이 차던진 초보적인 량심과 의리, 도덕도 체면도 없는 인간쓰레기가 만들어놓은 박근혜개종자형제들이 애비가 부정축재한 재산상속을 놓고 벌리는 개싸움질 또한 가관이다.

박정희의 유산이라고 하는 륙영재단이요 뭐요 하는 재단과 단체들을 놓고 법정에 고소한다, 증인을 내세운다 하며 서로 물고뜯는 형제간 개싸움은 아직도 결판을 보지 못하고있는 상태이다.

얼마전에는 박근령의 남편인 신동욱이 재판과정에 처남인 박지만이 조카를 시켜 자기를 청부살인하려고 했다는 증언을 하였다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만사람의 웃음거리로 되였다.

돈때문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던 끝에 한놈은 뒈지고 다른 한놈은 자살한 박근혜의 5촌놈팽이들의 꼬락서니 또한 뜻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일찍부터 교활하기 그지없는 최태민의 꼼에 안겨 종교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평세교라는 사교에 미쳐돌아간 박근혜이기에 집권 4년간 세상이 경악할 《국정》통락사태까지 빚어냈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년이 선무당에게 일보까지 씌바치면서 어처구니없이 놀아댄 추태는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는 물론 동시고금 그 어디에서도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천하피변이다.

들춰수록 구린내나는 더럽고도 치사스러운 오물더미가 다름아닌 박근혜년의 일가족속들이다.

력사와 민족은 이런 추악한 무리들을 결코 용서치 않는다.

더러운 인간오작품 박근혜의 애비가 뻐여져나온 생가라는것이 불길에 휩싸이고 오만하게 서있던 《유신》독재자의 흉상들에 오물들이 들씌워지고있다.

온 남조선땅에 역적가문의 혼적지 우기들풍이 불어치고있다.

거대한 초불대하에 포위된 청와대의 음침한 안방에서는 역적일가의 장녀 박근혜가 《대통령》직무마저 정지처분당한채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분분초초 다가오는 력사의 준엄한 판결만을 기다리고있다.

비참한 종말은 가장 추악한 역적일가족속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박정희역도가 집권 18년만에 수하 심복의 총탄에 맞아 즉사하였다면 박근혜년은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은지 18년만에 무당년에게 휘둘리워 돌아치던 끝에 파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졌다.

애비의 가장 수치스러운 개죽음과 에미의 비명횡사는 이 세상을 어지럽힌 박근혜년과 같은 재앙단지, 요물을 만들어놓은데 대한 응당한 징벌이였다.

분노한 각계층의 초불투쟁은 역적일가의 마지막씨종자까지 철저히 박멸해버릴 무서운 기세로 박근혜의 숨통을 시시각각으로 조이고있으며 만고역적년의 더러운 몸뚱이를 일도량단해치울 단두대가 징벌의 무자비한 선고만을 기다리며 시퍼런 섬광을 내뿜고있다.

천하의 악녀 박근혜년의 더러운 명줄이 완전히 끊어지고 역적가문의 추악한 족속들이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발을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주체106(2017)년 2월 26일
평 양

또다시 드러난 친일매국노의 정체

침략자와 매국노가 한데 어울려 날치는 곳에서는 자주권이 짓밟히고 인민들이 치욕을 당하기마련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하여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천년숙적 일본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는 피뢰배당의 친일사대매국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실태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일본당국은 남조선의 부산에 똬리를 틀고있는 저들의 총영사관앞에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이 세워진 문제를 놓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듯이 남조선주재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소환한다 어쩐다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는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치우라고 괴뢰들에게 련일 압력을 가하고있다. 얼마전에도 해외에서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와 마주한 일본외상 키시다는 《대우 유감》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일본총영사관앞에 세워진 《성노예소녀상을 당장 철거》시키라고 오금을 박았다.

그런가 하면 독도에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설치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활동까지 시비하면서 《용납할수 없다.》느니, 《조치를 취하라.》느니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것도 약과이다.

일본외상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남조선의 인터네트에 《다케시마》가 《독도》로 표기》되였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그것을 삭제하라는 날강도적인 요구까지 들고나왔다. 그리고는 《주시하겠다.》느니, 《결과가 중요하다.》느니 하면서 윤병세를 사정없이 닦아세웠다.

문제는 일본외상의 오만무례한 처사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항변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며 돌아간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의 수치스러운 굴종자세이다. 명색이 장관이라는자가 해외에 나가서까지 일본외상에게서 한갖 거지발싸개취급을 당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역도는 후안무치한 일본외상의 따귀라도 쳐서 사죄를 받아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목을 움츠리고 빌붙으며 일본의 반인륜적죄행을 폭로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활동을 모독하는 망동을 부렸다.

《외국공관앞에 소녀상을 설치한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느니, 《가능한껏 최대한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느니 하며 일본외상에게 비굴하게 말라맞추는 윤병세의 꼬락서니는 실로 역겹기 그지없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인터네트에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 《죄악의 굴욕외교》 등으로 조소하는 글들이 차고넘쳤겠는가.

윤병세역도의 망신스러운 추태는 친일매국노의 기질이 뼈속까지 짝 들어찬 역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것이다. 원래 이자가 박근혜역도의 눈에 들어 외교수장자리에까지 제바라오를수 있은것도 삼살개와 같은 그의 특유한 친일기질때문이였다.

아닌게 아니라 역도가 장관의 자리에 올라앉아 한다는것이란 그 무슨 《미래지향적판계》를 운운하면서 일본의 과거죄악을 눈감아주고 재침야욕을 부채질하는 역적행위뿐이였다.

윤병세역도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아가는 반일기운에 대해 《자극적인 감정적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한사코 가로막는가 하면 다른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앞에 조형물을 설치하는것은 《외교관례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이전시킬데 대한 공문까지 내려보내여 남조선 각계의 분격을 자아내고있다.

최근에도 이자는 위안부피해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였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꾸며댔으며 《가능한 빨리 일본과 소통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몇푼의 돈을 받는 대가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백지화해주고 일본과 맺은 굴욕적인 《합의》를 합리화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얼마전 부산에 세워진 일본군성노예소녀상앞에 일본을 비호하는 글이 나붙은 사건의 뒤에도 역시 윤병세가 있다고 언론들은 평하고있다.

아니 뭔 굴뚝에서 연기 나겠는가.

남조선에서 윤병세와 같은 구걸병자가 친일역적행위를 저지르면서 제세상처럼 날치는것은 청와대마녀의 적극적인 비호와 부추김이 있었기때문이다.

사대굴종으로 체질화되고 반공화국적대의식이 화석처럼 굳어진 이자는 박근혜역도의 손발노릇을 하면서 선임자들이 감히 엄두도 못내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강행하는데도 깊숙이 관여하는 등 그 어떤 역적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은 물론 제침의 기회만을 노리는 일본반동들까지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데로부터 출발한 극악한 매국배족행위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을 두고두고 저주하고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에서 윤병세역도와 같은 한줌도 못되는 천하의 매국역적들이 아직까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일본사무라이족속들에게 련일 급신거리며 그 치욕의 력사를 또다시 되풀이하려고 하고있다. 이것을 과연 용서할수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온갖 죄행을 폭로하고 역적무리를 매장해버리고야말 인민들의 불같은 의지가 하늘에 닿고있다.

《소녀상을 철거하지 말라.》, 《친일매국노들의 〈합의〉는 무효이다.》, 《박근혜탄핵, 윤병세 즉각 퇴진》…

남조선의 초불항쟁거리에서 무섭게 터져나오고있는 이 분노의 폐침은 역적패당을 전률시키고있다.

그렇다. 제앙단지는 하루빨리 제거해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박근혜역적패당의 친일매국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투쟁으로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기 위해 더욱 과감히 떨쳐나설것이다.

본사기자 장 일 향

단 평 돈에 팔린 산송장들의 란동

요즘 남조선에서 초불민심을 모독하는 맞불집회놀음의 추악성이 드러나 여론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탄핵반대집회》에 동원된자들을 보면 온통 주정뱅이, 건달군, 부정부패와 성추문정력자 등 문둔에 잴린 인간쓰레기들인데 이자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란리가 난다고 한다. 바퀴가 모르는 음식이 없다고 거리바닥에서 《탄핵반대》를 부르짖다가는 주변식당과 매점들에 쓸어들어가 《술을 마셔야 힘이 더 난다.》고 하면서 공짜로 실컷 처먹고 비름까지 훔쳐가지고 달아나는자가 있는가 하면 구린내나는 양말짝을 벗어 말려우고 돼지먹따는 소리로 노래부르며 소란을 피우는 놈, 물에 차고있던 지저분한 오물들을 놀부처럼 아무데나 막 털어놓는 놈 등 별의별 추물들이 다 있다고 한다. 아무에게나 반말질이고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욕언을 내뱉으며 행패까지 부리는 이 늙다리미치광이들은 다짜고짜 사람들을 붙잡고 탄핵반대림장표명을 강요하는가 하면 초불집회참가자들을 《빨갱이》로 몰아대며 《계엄령을 선포하는것이 상책》이라는 수작까지 궤쳐대고있다. 최근에 이자들은 인터네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살해하겠다는 글까지 올려 소동을 일으켰다. 이런 보수깡패들의 성화에 《정신나갈 지경이다.》, 《섬뜩하다.》고 하소연하고 분격을 터치는 주민들이 한둘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까지도 《사이비종교인들의 광기》, 《리해할수 없는 미친짓》이라고 조소하면서 이자들의 망동이 오히려 박근혜의 목줄을 더욱 조이는 작용을 하고있다고 하겠는가.

문제는 박근혜역도가 이런 인간오작품들의 망동을 두고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한 헌신》이니, 《눈물이 난다.》느니 하고 떠억을 들자 한동안 초불민심에 주눅이 들어있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탄핵반대집회》에 뛰여들고있는것이다.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다고 얼마나 밑울데가 없고 살 가망이 보이지 않았으면 이런 너절한 쓰레기들까지 붙잡고 발광하겠는가.

괴뢰보수떨거지들의 맞불집회놀음이라는것은 이처럼 추악하기 그지없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별할 능력도 주견도 없이 역도년이 던져주는 푼돈에 목이 매여 맞불집회판놀음을 부리는 극우보수깡패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니 이따위 산송장들에게 의거하여 정치적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청와대악녀의 신세는 또 얼마나 가련한가.

허 영 민

박근혜의 즉각 탄핵은 국민의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가 20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역도년의 탄핵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국민의 퇴진명령을 받은 박근혜와 공범자, 비호세력이 혀묘은 《안보위기론》과 《색깔론》을 운운하며 사회여론을 조성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비렬한 탄핵방해책동을 거부하고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만의 하나 《헌법재판소》가 청와대범죄세력, 비호세력과 손잡고 국민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그들은 《국회》는 보수세력의 시대착오적책동에 대해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박근혜를 탄핵한 후 《대통령》선거를 통해 단순히 《정권》만을 교체하는것이 아니라 친일독재, 보수세력을 심판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은 하늘을 찌를듯 높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은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올해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인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 대외적환경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세계를 돌려보면 우리 민족처럼 반세기가 훨씬 넘게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 민족은 없다. 그처럼 장기적인 핵위협속에 사는 민족 또한 세상에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하다면 우리 민족이 누구때문에 기나긴 세월 민족분렬의 수난을 겪고있는것인가. 미국때문이다. 우리 민족과 강토를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여년 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는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피묻은 군화발을 들여놓은것은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지 결코 그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지배를 통하여 전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실현할 야망밑에 민족분렬책동에 매달려왔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잇고 살아온 우리 민족이 동족끼리 서로 싸워야 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화해와 단합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해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과 지향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다.

조선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은 남조선괴뢰들을 동족대결에로 적극 부추기면서 전쟁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배에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는 미국은 무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지역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고의적인 망동이다.

우리 민족의 영구분렬을 노리고있는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들을 동족대결에로 내모는 방법으로 민족리간책동을 계속 일삼고있다. 미국의 간섭책동이 아니였다면 우리 민족은 이미전에 단합된 힘으로 통일된 부강조국을 일떠세웠을것이다.

민족분렬의 장본인, 긴장격화의 주범인 미국은 남조선에 남아있을 구실도 명분도 없다. 지난 시기 미국은 쏘련의 《남하를 전제》하기 위해 미군의 남조선주둔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쏘련은 붕괴되고 랭전은 종식되였다.

미국은 조선인민의 의사와 배치되게 남조선강점 미군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계제패야망실현에 써먹고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는 시대의 요구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는것은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끝장나면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과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제거될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발원지가 없어지게 될것이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것이다.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는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환영을 받을것이다.

지금 미국내에서는 대조선정책에서 《어떤 정책상의 변화도 없다.》는 소리들이 왕왕 튀어나오고있다.

미국이 실패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탐습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 공화국이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섬으로써 지역의 전략적구도가 달라졌다. 세계도처에 널려있는 미군기지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타격권안에 들어있다.

미국은 본토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처지에 있다.

미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있다. 해외군사기지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인민들은 파도한 세금부담에 시달리고있다. 미국민들은 많은 비용이 드는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있다.

미국은 무분별한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하는것은 미국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으로 될것이다.

일본도 조선분렬의 책임을 회피할수 없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우리 나라를 분렬시킨 장본인이다. 과거에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는 애당초 분렬되지 않았을것이다. 일본은 조선의 분렬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우리 나라의 통일에 훼방을 놓지 말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조선의 영구분렬을 바라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려왔으며 조선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려왔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당한 패배의 앙갚음을 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것은 일본의 정책적목표이며 전략이다.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야금야금 제거해왔다. 현 정권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군국주의부활과 조선재침책동에 더 극성을 부리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대일적개심을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화승대도 변변한것이 없이 강토를 빼앗긴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라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이다. 일본이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겠다는것은 자멸을 촉진하는 길이다.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버리고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더이상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한다.

미국은 조선을 분렬시켜놓고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다. 미국이 조선의 영구분렬을 피하면서 남조선에 살인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것은 우리 공화국만을 노린것이 아니다. 지역의 대국들을 제압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다. 미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지역에서 군비경쟁의 열풍이 일고있으며 전략적리해관계를 놓러싸고 대립구도가 형성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되여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떠나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분렬된 조선반도의 남북땅이 세계 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되고있고 세계제패를 노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불피코 핵전쟁으로 확대되게 되며 주변나라들은 여기에 말려들지 않을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조선반도가 둘로 갈라져있고 남조선에 미군이 들고 앉아있는 한 지역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수 없으며 주변나라들의 안전은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여있다. 때문에 우리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마땅히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외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방관시하거나 외면하는것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것이다.

민족의 세기적숙망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인 투쟁으로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이 땅우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올것이다.

리 현 도

인디아신문들 특집

인민을 위해 바치신 고귀한 한평생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인디아 신문들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인디안 엔드 월드 이벤트》 3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들을 응근 두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사회주의위업에 바치신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 사회주의위업에 바치신 가장 큰 업적은 사회주의의 윤명을 수호한것이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자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완전종말》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이러한 때에 김정일각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명확히 밝히시여 적들의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였다.

또한 군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이시여 사회주의의 보루를 지켜내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펼쳐놓으신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깊이 아로새겨질것이다.

《오우션 뉴스 포인트》 9일부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령도자 김정일》이라는 제목으로 응근 한면에 특집하였다.

신문은 2월 16일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 75돐이 되는 날이다, 인민의 행복을 최대의 기쁨으로, 락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일령도자의 고귀한 한평생을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뉴델리 타임스》 8일부는 《조선의 자강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준엄한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안아올수 있은 요인의 하나가 다름아닌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자강력이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소개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와 성과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제재와 봉쇄속에서 순전히 자체의 힘으로 이룩되였다.

조선인민은 결코 그 어떤 제재나 압력에 굴복할 인민이 아니다. 그들은 외부의 압력이 강화될수록 더욱 분발하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는 자력자강의 강자들이다.

바로 자력자강의 정신이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으며 그에 토대하여 인공지구위성을 제작, 발사하고 수소탄까지 만들어냈던것이다.

자강력이야말로 조선인민이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게 한 백승의 보검이다.

《어웨이킹》 11일부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치시여》라는 제목으로 조선민족의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상세히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수를 광범히 연구보급해나가겠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격정 토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오카미 쟁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하신 김정일총비서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조선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에도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기치가 내리워지고 정치적파동을 겪으며 자본주의길에 들어서게 되였을 때에도 조선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의 자주적정치로선에 따라 사회주의길로 줄기차게 전진하여왔다.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떠재를 올리며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온갖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적공세를 집중하였던 바로 그때 조선은 이에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조선은 자기의 강위력한 모습을 잃지 않고 인민이 주인된 제도를 굳건히 지켜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끄신 강철의 령장 김정일총비서의 업적중의 업적이다.

오늘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진두에서 투쟁해나가고계신다.

사무국장은 위대한 김정일총비서의 탄생 7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평양에서 그이의 존함을 모신 국제김정일상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국제적으로 권위있고 명망높은 명예상을 수여받은 기쁨과 감격을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 정말 유감이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수십년간 중단없이 줄기차게 벌리였다.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은 긍지롭고 영예로운것이다.

그러나 결코 쉬운것은 아니였다. 자본주의사회에는 구석구석에까지 자본주의독소가 만연되여 온갖 부정의와 사회악이 판을 치고있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개인리기주의,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지배하고있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속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진행하는것은 현실에 범람하는 자본주의사상문화를 이겨내기 위한 자기자신과의 투쟁을 동반한다.

오늘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은 사회주의보루인 조선으로 향하고있으며 광범한 대중은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주체의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수를 광범히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겠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위원장께서 건강하시여 선대수령들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계승완성해나가시기를 절절히 바란다.

로씨야대통령 쓰딸린그라드격전승리 75돐을 경축할데 대한 정령 비준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쓰딸린그라드격전에서의 쏘련군의 파쑈도 이쉘란드군격멸 75돐을 경축할데 대한 정령에 수표하였다.

정령은 쏘련군이 쓰딸린그라드격전에서 파쑈도이쉘란드군을 격멸한것이 1941년-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2018년 2월 2일 쓰딸린그라드격전승리 75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경축준비위원회를 조직할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정령에 따라 부수상 드미트리 로고진이 경축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

대통령은 정령을 통해 정부가 1개월안으로 경축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주요행사계획을 작성, 비준하며 경축준비사업과 관련행사들에 참가할것을 로씨야련방주체 국가정권기관들에 권고할것을 지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내외의 비난을 받는 미국의 내정간섭행위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있다. 지어 미국정계인물들속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존 케리는 미국무장관자리를 내놓기 전에 당시 대통령당선자였던 트럼프가 도이췰란드의 피난민정책을 시비한것을 평하면서 《솔직히 말하여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그토록 단도직입적으로 간섭하는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어 말하였다. 케리의 발언은 결국 력대로 집요하게 추구해온 미국의 지배주의와 간섭정책에 대한 자인으로 된다.

그의 발언은 다른 나라들의 응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 자하로바는 워싱톤에서는 어째서 그러도 뒤늦게야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였는가, 바라크 오바마나 빌 클린톤, 부쉬 1세, 2세 등 력대 미국대통령들을 놓고볼 때 이러한 전해는 매우 적절하다, 미국의 내정간섭이 없었더라면 세계는 아마도 많은 불행을 면하였을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금언을 백악관의 타원형사무실입구에 영원히 붙여놓을것》을 미국에 제의한다고 야유하였다.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에 들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을 밥먹듯 해온것으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거리들을 안고있다. 과도한 침략전정책으로 막대한 자금이 탕진되여 천문학적인 빚더미우에 올라 올며 겨자먹기식으로 군비를 축감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빠져있다.

경제는 파국에로 치닫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각종 사회적모순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국제적으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침략정책의 희생물이 된 수많은 나라들에서 인민들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고 세계도처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은 보복과 징벌의 과녁이 되여 발편잠을 자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이 가져온 응당한 결과이다.

미국의 력사는 악의 력사이며 미국의 대외정책은 악으로 일관되여왔다. 인디안들의 피바다우에 솟아난 미국은 힘의 사용을 국책으로 삼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내정간섭을 일삼아왔으며 그를 통해 탐욕적리익을 챙겨왔다.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은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해왔다.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정권들을 전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이 반란과 군사정변 등에 의해 무너진 력사적사건들의 흑막속에는 언제나 미국의 흉계가 숨어있었다.

특히 랭전종식후 미국은 힘의 균형이 파괴된것을 저들주도의 세계질서를 수립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제스스로 국제경찰관행세를 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고 이래라저래라 혼시질을 하고 강권과 전횡을 일삼아왔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침략의 희생물이 되였다. 오늘 중동지역정세가 파국상태에 처한것도 전적으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에 기인된다.

미국은 벨벤스럼게도 내정간섭책동이 그 나라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

묻건대 미국에 의해 이룩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라는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계의 여러곳에서 분쟁과 충돌,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을 조성하고 수많은 어린이들과 녀성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것밖에 없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는 악의 제국이다.

일찌기 미국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미국을 발견한것은 좋은 일이지만 미국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의 이 말은 오늘의 패권국가인 미국에 비추어보아도 손색이 없는 명언이라고 할수 있다. 세상사람들은 미국이 없었더라면 세계가 얼마나 평안하였겠는가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이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행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제가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월간국제정세개관

2월의 국제정세가 주는 심각한 교훈

2월이 어느덧 마감을 짓고있다.

흘러온 한달의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 공화국에서 울려퍼진 커대한 동음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이달에 우리가 안아올린 자랑찬 패거의 불뢰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12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향해 기운차게 날아올랐다.

《북극성-2》형탄도탄은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새롭게 개발된 명실공히 주체탄, 주체무기이다.

이 빛나는 대성공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로케트강국의 존엄을 한껏 느끼게 해주었으며 적대세력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적들은 《눈을 도사리고 지켜보았으나 북의 이동식발사현장을 도저히 포착할수 없었다.》, 《북의 미싸일을 발사준비단계에서부터 선제타격하는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아부재기를 치며 우리를 걸고들었다.

13일 미국의 주도밑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시험발사를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몰아붙이고 《추가적인 중요조치》를 취할것이라는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를 마구 짓밟는것으로서 철두철미 미국식관별법에 따른것이다.

외신들은 《조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것은 헛된 일》, 《대결정책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와 핵시험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대조선정책변화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적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우리의 최후승리는 더 앞당겨지고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자주적으로 존엄있게 살아갈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는 이 현실은 막강한 방위력을 가질 때 자기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이달에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위협》과 《도발》을 운운하면서 침략전쟁책동에 광분하였다.

미국은 일본, 남조선과의 군사적결탁강화에 열을 올리였다.

남조선과 일본을 행각한 미국방장관은 우리의 핵무력고도화조치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큰 도전으로 된다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를 《위협세력》으로 몰아붙이였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새 행정부가 첫 해외행각지를 일본, 남조선으로 정한것은 명백히 미국의 전략적목표가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고 평하였다. 그리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전략무력의 집결이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의 한 고리로 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랭전이 현실화되여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지 미국은 《F-22》스텔스전투기 12대를 일본에 전개한데 이어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던 미해병대 1개 대대를 오끼나와에 배치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본토에 있는 《F-16》전투기 12대를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전개하고 최신에스껠스구축함 《줌월트》호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려 하였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최신형이라고 하는 《줌월트》호를 배비하려는것은 미국이 이 지역을 매우 중시하고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가 더욱 격화될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미군특수부대소속 수직리착륙기 《오스프레이》와 함께 《MC-130》특수작전기를 투입하여 군산미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우리측 지역에 침투하여 중요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감행한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의 탄도탄시험발사에 의한 《위협증대》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싸드》배비가 절실하다는 식으로 저들의 침략무력증강책동을 정당화, 합법화하였다.

우리의 《북극성-2》형시험발사가 있은지 며칠후 미해군은 잠수함탄도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다. 가판은 저들의 미싸일발사는 정기적인 군사적조치라는듯이 광고한것이다.

현실은 미국이 떠들어대는 우리의 《위협》과 《도발》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강도론리이며 진짜도발자, 위협세력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라는것을 똑똑히 립증해주었다.

이달에 들어와 미국을 등에 업고 세계제패를 꿈꾸는 일본의 군국화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였다.

일본의 나고시 헤노꼬연안지역이 주일미군의 침략전쟁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전초기지로 변하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오끼나와현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6일 헤노꼬앞바다에서는 후텐마미공군기지이설을 위한 해상공사가 시작되였다.

일본의 대중보도수단들은 미군이 헤노꼬기지에 고속수송선을 배비하여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기동능력을 높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신속반응능력을 증강할 계획이라고 록도하면서 이렇게 되면 헤노꼬기지는 오끼나와주둔 미군의 작전능력이 집중되는 가장 위험한 군사기지로 전변되게 된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일미의 위험한 군사적결탁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새로운 랭전마당으로 전변되고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달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 지역간, 나라간 대립과 마찰이 격화되였다.

미국이 예민한 지역들에 더 많은 무장장비들을 배비, 수출하고 중미판계가 군사적으로 긴장해지면서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이 자국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또한 미국과 나토가 동유럽에 방대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배비한것으로 하여 로씨야와 미국,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군사적긴장이 고조되였다.

미국은 이러한 무력전개가 동쪽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고 유럽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떠들었지만 여론들은 이를 로씨아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높이기 위한데 목적을 둔것이라고 평하였다.

이란-미국판계, 베네수엘라-미국판계, 메히꼬-미국판계가 더욱 버그러진것도 오만과 독단으로 일관된 미국의 지배주의책동에 기인된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지배주의를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섰다.

이란의 각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혁명승리기념일을 맞으며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쓴 기발들을 들고 반미,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면서 시위행진을 벌렸다.

그들은 미국이 부당한 구실로 자기 나라에 또다시 새로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고 이슬람교도들의 려행금지를 선포한데 대해 준렬히 단죄하였다.

베네수엘라외무성은 미재무성이 자국 부대통령을 제재명단에 올린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독단적이며 비법적인 조치를 단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날이 악화된 이달의 정세흐름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것은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생존수단으로 하는 미국을 비롯한 지배주의적대세력이 남아있는 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이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이 자체의 군력을 강화하면서 굳게 단결하여 온갖 부정의의 왕초 미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때만이 지구상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수 있다.

본사기자 박 송 영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늘어나는 석탄생산

잠비아에서 지난해에 석탄생산량이 그 전해에 비해 21.9% 더 늘어나 12만 6 050t에 달하였다.

1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수산물생산 증대

인디아에서 지난해에 2 090만t의 수산물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6.21%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풍력에네르기리용계획

메히꼬정부가 최근 새로운 풍력에네르기리용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2018년말까지 풍력에네르기를 리용하여 250만kW의 전력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현재 이 나라에는 약 40개의 풍력발전소가 있으며 발전소들의 총발전능력은 350만kW에 달하고있다 한다.

정부가 계획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여러 나라들 협조

르완다와 우간다가 23일 범죄방지투쟁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22일 잠비아와 마로끄는 항공운수, 투자, 금융, 교육, 관광 등 분야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19건의 협조문건들에 조인하였다.

문건들은 마로끄국왕의 잠비아방문과정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싸드》배치반대립장 강조

중국국방부 대변인이 2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립장을 강조하였다.

그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가 중국과 로씨아를 포함한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리익을 침해하고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까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는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남조선당국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는 중국군대는 필요한 준비를 잘하여 국가의 안전을 수호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23일 이스라엘당국은 동부꾸드스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반이스라엘교육을 주고있다는 구실을 내걸어 학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학교에서는 약 220명의 팔레스티나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팔레스티나인들의 배움의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만행은 내외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71032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